

을 더 묶어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다 긴 글도 여기에 수록했으며, 번역문으로는 「현대 영화와 유산계급」 한 편을 골라서 마지막에 첨부했다. 그것은 영화가 중국에서 일찍부터 유행되기는 했지만 이처럼 요약해 쓴 논문은 보기 드문 것이어서 세상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확실히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한도 있는데 한쪽 편은 읽고난 독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요긴하다고 생각되는 내신(來信) 몇 통도 내 마음대로 함께 수록했다.

1932년 4월 30일 밤
편집을 끝마치고 씀

‘역지 번역’과 ‘문학의 계급성’

‘硬譯’與‘文學的階級性’¹⁾

『신월(新月)』 월간 단체²⁾의 사람들이 요즈음 잡지 판매가 나아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 사실인 듯하다. 나같이 교제 범위가 넓지 못한 사람도 젊은 친구 두 사람이 『신월』 제2권 제6·7호의 합본호를 쥐고 있는 것을 보았을 정도이니. 그래서 나도 넘겨보았더니 ‘언론 자유’에 관한 글³⁾

- 1) 이 글은 1930년 3월 상해 『맹아 월간』 제1권 제3호에 처음 발표되었다.
- 2) 신월사를 가리키는데 일부 자산계급 지식인들을 핵심으로 한 문학·정치 단체이다. 1923년경에 북경에서 창립되었는데 주요 성원은 호적(胡適), 서지마(徐志摩), 진원(陳源), 양실추(梁實秋), 나용기(羅隆基) 등이었다. 시사의 명의로 1926년 여름에 북경 『신보(晨報) 부간』에 『시간(詩刊)』(週刊)을 낸 적이 있다. 1927년 상해에서 신월서점을 운영해왔고 1928년 3월에 종합성을 띤 월간 『신월』을 출판했다. 신월사의 주요 성원들은 잡지 『현대평론』을 운영한 적이 있어 ‘현대평론파’라고도 불렀다. 그들은 처음에는 북양 군벌에 의존하다가 1927년 장개석이 혁명을 배반한 후에는 국민당에 의탁하여 ‘영국식 민주주의’를 고취했고, ‘호정부주의(好政府主義)’의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왔으며, 문학 면에서는 혁명문학 운동을 극력 공격했다.
- 3) 『신월』 제2권 제6·7호 합본호(1929년 9월)에 실린 호적의 「신문화운동과 국민당」, 나용기의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자에게 고하는 글」, 편집자의 「삼가 독자에게 알림」 등을 가리킨다. 후자는 동인의 이름을 빌려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우리는 모두 ‘사상의 자유’를 신봉하며 ‘언론·출판의 자유’를 주장한다. 우리는 ‘용인’하는 태도를 지니며(단 ‘용인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다)를 취하며 온건하고 합리적인 학설을 좋아한다.” 당시 신월파는 비록 “언론의 자유”를 쟁취할 것을 높이 부르짖었지만 실제로는 인민들의 진정한 언론 자유를 반대했다.

과 소설이 많았다. 권말쯤에 양실추⁴⁾ 선생이 쓴 「노신 선생의 ‘역지 번역’에 대하여」라는 글이 실렸는데, 그는 이 글에서 나의 번역을 “기계적 번역에 가깝다”라고 했다. 그리고 “기계적 번역 풍조도 절대로 오래갈 수 없다”라고 한 다음, 내가 번역한 세 단락의 글과 『문예와 비평』⁵⁾ 후기에 있는 글들, 즉 “그러나 역자의 능력 부족과 중국어의 고유한 결합으로 인해 번역을 해놓고 보니 글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해독하기 어려운 곳도 꽤 많다. 그렇다고 전개문의 부성분⁶⁾을 따로 갈라놓게 되면 원문의 어감이 달라지게 되므로 나오서는 이렇게 역지 번역을 하는 외에는 다른 수가 없다. 남은 유일한 희망이라면 독자들이 마음을 단단히 다잡아 먹고 읽어주는 것뿐이다”라는 글을 인용하고 글자 옆에 조심스럽게 방점을 찍었으며, ‘역지 번역’이란 글자에는 또 이중 방점까지 찍어 놓았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아먹고 다 읽어보았’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역지 번역’이 ‘기계적 번역’과 무슨 차이가 있는

4) 양실추(梁實秋)는 절강성 향현(오늘날의 여항) 출신으로서 신월사의 주요한 성원이며 국가사회당 당원이었다. 그는 『신월』 제2권 제6·7호 합본호에 발표한 「노신 선생의 ‘역지 번역’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썼다. “오역은 물론 나쁜 것이다. 그것은 원문에 충실하지 못하고 알맹이를 찌꺼기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서적이 모조리 오역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한 쪽에 오역된 곳이 몇 군데 있어도 오역되지 않은 곳도 있는 법이다. 그리고 부분적인 오역도 잘못은 잘못이어서 결국 독자들에게 틀린 개념을 주고 그것이 실로 해아릴 수 없는 해독을 끼칠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읽을 때에는 여하튼 상쾌감을 느끼게 된다. 기계적 번역은 이와 다르다. 기계적 번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계적으로 번역되어 읽어도 읽지 않은 것과 같아서 시간과 정력만 허비하게 된다. 오역하는 병폐가 있는 사람은 기계적으로 번역하는 잘못을 범할 수는 없지만 기계적으로 번역하는 사람은 가끔 오역도 동시에 범하게 된다. 때문에 나는 오역을 우리가 극도로 증오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기계적 번역 풍조도 절대로 오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5) 노신이 번역한 소련의 문예비평가 루나차르스키의 논문집. 1929년 10월 상해 수필서점(水沫書店)에서 출판되었다.

6) 복합문 중의 단순문을 가리키는데, 지금은 많은 경우에 ‘주술적 단어 결합’이라고 한다.

가?” 하고 ‘엄정’한 ‘비평’을 했다.

신월사의 성명(聲明)⁷⁾에서는 아무런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했고, 논문에서도 무산계급식의 ‘조직’이니, ‘집단’이니 하는 용어들을 통절히 중요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을 갖고 있다. 적어도 이 합본호에 실린 정치 논문을 보면 서로 ‘조용’되어 있다. 문예에 관해 말한다면 이 글은 앞에 실린 동일한 비평가의 글인 「문학에 계급성이 있는가?」의 찌꺼기이다. 이 글에는 이런 말이 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런 유의 서적들 중에는 내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제일 곤란을 느낀 것은 문자이다. 읽기가 그야말로 천서(天書)보다도 더 힘들었다. ……지금 중국인치고 중국인이 알아볼 수 있는 문자로 글을 써서 무산문학의 이론이 도대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에도 방점이 있지만 인쇄에 번거로울까봐 그대로 찍지 않는다. 요컨대 양 선생은 모든 중국인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이런 책들은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 모든 중국인이 이해하지 못할 것은 물론이니 모름지기 중국에서 그 생명을 끊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풍조는 절대로 오래갈 수 없다”고 고시(告示)한 것이다.

다른 ‘천서’의 저자나 역자들의 의견은 대표할 수 없지만, 나 개인으로서 말하자면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본다. 첫째, 양 선생은 “마음을 단단히 다잡아먹고 읽었다”라고 자처하지만 정말 단단히 다잡아먹었는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단단히 다잡아먹었다고 자처하지

7) 『신월』 창간호(1928년 3월)에 실린 「신월의 태도」를 가리킨다.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우리 몇몇 벗들은 이 월간 자체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조직도 없으며, 문예와 학술 면에서의 노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결합도 없으며, 몇 개의 공통된 이상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일치성도 없다.”

만 사실은 단단하기는커녕 숨처럼 무른 것이 신월사의 특색 중 하나이다. 둘째, 양 선생은 스스로 모든 중국인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그가 과연 중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인가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된다. 이 문제는 「문학에 계급성이 있는가?」란 글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Proletary⁸⁾를 음역할 필요 없이 의역해도 된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 비평가는 이렇게 말했다. “기실 사전을 뒤져보면 이 단어의 함의는 그다지 영예롭지 못하다. 『웹스터 대사전』⁹⁾에 근거하면 Proletary의 뜻은 이러하다. ‘A citizen of the lowest class who served the state not with property, but only by having children…….’ 프롤레타리아는 국가에서 아이를 낳을 줄밖에는 모르는 계급이다(적어도 로마 시대에는 그러했다!)” 그러나 이진 ‘영예로움’의 문제가 아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을 로마 시대로 보지 않을 것이고, 현재의 무산자들을 다 로마인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Chemie를 ‘사밀학(舍密學)¹⁰⁾’이라고 번역해도 독자들이 이집트의 ‘연금술(煉金術)’과 혼동하지 않으며, ‘양’ 선생이 쓴 글에 대해서도 그 어원을 따져보고서 ‘외나무다리’가 붓을 놀려 써낸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으리라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사전을 뒤져보아’도 『웹스터 대사전』을) ‘소득이 없다’고 하는데, 모든 중국인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8) 영어로 무산자란 뜻이다. 아래 글에 나오는 ‘프롤레타리아’는 영어 Proletariat의 음역인데 무산계급이란 뜻이다.

9) 미국의 N. 웹스터(1758~1843)가 편집한 대형 영어사전. 그 초판은 1828년에 출판되었다. 그 아래의 영문의 뜻은 이러하다. 무산자는 최하층 계급의 공민인데, 그들은 재산으로가 아니라 단지 아이를 낳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복무한다.

10) 즉 화학이다. ‘사밀’은 독일어 Chemie의 음역이다. 이 말은 그리어 Chemeia에서 온 것인데 ‘연금술’이란 뜻이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흥미를 느꼈던 것은 앞 절에서 인용한 양 선생의 글 가운데 ‘우리’라는 말이 두 군데나 있어서 자못 ‘다수’이거나 ‘집단’ 같은 맛을 돋우어주는 점이다. 물론 필자가 혼자서 써낸 글이라 하더라도 의견이 같은 사람은 그 외에도 있을 터이니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힘도 좀 있어 보이고 책임을 혼자 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지만 ‘사상이 통일되지 않고’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할’ 때에는 바로 양 선생이 자본 제도를 비평한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한 가지 ‘폐단’이 있게 된다. 즉 ‘우리’가 있는 이상 우리를 제외한 ‘그들’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신월사의 ‘우리들’이 비록 나의 “기계적 번역 풍조는 절대로 오래갈 수 없다”라고 했지만 읽어서 ‘소득이 없지’ 않을 다른 부류의 독자들이 있을 것이니 나의 ‘역지 번역’이 ‘그들’ 사이에서 의연히 생존할 것이며, ‘기계적 번역’과는 그래도 구별이 좀 있게 될 것이다.

나 역시 신월사의 ‘우리들’ 이외의 ‘그들’ 중의 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의 번역작품은 양 선생이 요구하는 조건과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역지 번역에 대하여」란 글의 첫머리에서는 오역이 기계적 번역보다 낫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서적이 모조리 오역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부분적인 오역도 잘못된 것이어서 결국 독자들에게 틀린 개념을 주고 그것이 실로 헤아릴 수 없는 해독을 끼칠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읽을 때에는 여하튼 상쾌감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 두 구절에는 그야말로 이중 방점을 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본래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나의 번역작품은 애초부터 독자들에게 ‘상쾌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므로 종종 불쾌감을 주며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우울과 증오와 분노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읽어서 ‘상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는 물론 신월사 사람들의 저서나 역서가 있다. 서지마¹¹⁾ 선생의 시, 심종

문¹²⁾·능숙화¹³⁾ 선생의 소설, 진서형(즉 진원) 선생의 한담¹⁴⁾ 양실추 선생의 비평, 반광단 선생의 우생학¹⁵⁾ 그리고 배빗 선생의 인문주의¹⁶⁾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양 선생은 글의 후반부에서 “이런 책을 볼 때에는 마치 지도를 보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문장 구성의 연결과 위치를 찾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런 말은 내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소리여서 말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책’을 볼 때에는 마치 지도를 보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문장 구성의 연결과 위치’를 찾아야 한다. 지도를 보는 것은 비록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양귀비 그림’이나 ‘소나무, 대나

11) 서지마(徐志摩, 1897~1931)는 절강성 해녕 출신으로서 시인이며 신월사의 주요 성원이다. 저서로는 시집 『지마의 시』, 『맹호집』 등이 있는데 신월시파의 대표작이다.

12) 심종문(沈從文)은 호남성 봉황 출신으로서 작가이다.

13) 능숙화(凌叔華)는 광둥성 번우 출신으로서 소설가이다. 그는 서지마, 심종문과 함께 당시 『신월』에 늘 소설을 발표했는데, 뒤에 나오는 「이사(搬家)」는 능숙화가 쓴 단편소설이다.

14) 진서형(陳西滢)이 『현대평론』, 『한담』 전문란에 발표한 글을 가리킨다. 그가 후에 묶은 『서형 한담』은 1928년 3월에 신월서점에서 출판했다.

15) 반광단(潘光旦, 1899~1967)은 강소성 보산(오늘날의 상해시에 속함) 출신으로서 신월사의 성원이다. 일찍이 일부 지주 가족의 족보에 근거하여 유전을 해석하고 우생학을 선전했다. 저서로는 『명청 두 왕조 가흥의 명문 가족』 등이 있다. 우생학은 영국의 유전학자 골턴이 1883년에 제기한 ‘인종 개량’ 학설이다. 이 학설은 인간 또는 인종의 생리 및 지력 면에서의 차이는 유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인류의 유전 소질을 어떻게 개진할 것인가를 연구한 것이다.

16) 배빗(I. Babbitt, 1865~1933)은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이며, ‘신인문주의’ 운동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자산계급 인성론을 핵심으로 한 그의 이론은 이른바 인성의 균형을 고취했고 개인 억제 및 도덕 준칙을 제창했다. 그는 낭만주의를 반대하고 유럽 고전 문예의 부활을 주장했다. 주요 저서로는 『신라오론』, 『루소와 낭만주의』, 『민주주의와 영도』 등이 있다. 양실추는 『신월』에서 배빗의 인문주의 이론을 늘 소개했으며, 오복 등이 번역한 배빗의 논문을 『배빗과 인문주의』라는 책으로 편집했다. 이 책은 1929년 1월 신월서점에서 출판했다.

무, 매화나무의 그림’을 보는 것보다 ‘상쾌’하지는 못하며, 더구나 손가락까지 써야 하지만(기실 이것은 양 선생 자신만이 그러할 것이다. 지도를 늘 보아온 사람은 그저 눈으로 보면 되는 것이다), 지도란 결코 죽은 그림이 아니다. 그러므로 ‘역지 번역’도 그와 비슷한 노력이 드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치대로 말하자면 역시 ‘기계적 번역’과는 ‘어떤 차이’가 좀 있다. ABCD를 아는 자가 스스로 새로운 지식에 통달했다고 해도 화학 방정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며, 주판을 놓을 줄 아는 자가 스스로 수학자라고 해도 필산(筆算)한 계산식은 알아보지 못한다. 오늘날은 학자가 되기만 하면 모든 일을 다 이해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런데 양 선생은 스스로 그 실례를 들었다. 즉 “전후관계를 생략한 까닭에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번역한 세 단락의 번역문을 그 실례로 들었다. 「문학에 계급성이 있는가?」라는 글에서도 유사한 수단을 써서 번역시 2수(17)를 든 다음 “어쩌면 위대한 무산 문학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겠다”라고 총평을 내렸다. 이런 방법은 물론 ‘상쾌’한 것이다. 그러면 나도 이번 호 『신월』에 실린 창작—그것은 창작이다!—「이사」 8쪽에서 한 단락을 들어보기로 하겠다.

“병아리는 귀가 없나요?”

“나는 귀가 있는 병아리를 못 봤다.”

“그럼 병아리는 내가 부르는 걸 어떻게 들어요?”

그 아이는 그에게 귀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눈은 물건을 보는 것이라고 알려주던 넷째 할머니의 말이 생각나서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이 달같은 흰 닭의 알인가요, 검은 닭의 알인가요?” 넷째 할머니가

17) 광말약이 번역한 소련 말렌호프의 「10월」과 소문이 번역한 소련의 사모비트니크의 「한 새로운 동자에게」를 가리킨다.

응대하지 않자 즈얼은 일어나서 달걀을 만지작거리면서 또 물었다.

“지금은 알 수 없다. 이 다음에 병아리가 깨어나야 알 수 있다.”

“완얼 언니가 그러는데 병아리가 커서 어미 닭이 된대요 이 병아리들도 크면 어미 닭이 되나요?”

“잘 먹이면 크게 되고 말고 저기 저 닭도 사울 때야 어디 저렇게 크더냐?”

이만하면 됐다. ‘문자’도 알 만하고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전후 관계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나 나는 ‘기다리’지는 않겠다. 이 한 단락만 보아도 그것은 ‘상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작하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마지막에 양 선생은 또 이렇게 힐문했다. “중국 글과 외국 글은 다르다. ……번역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점에 있다. 두 가지 문자의 문법, 문장 구성, 어휘 구성이 완전히 일치한다면 번역을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문장 구성을 좀 바꾸어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첫째 목표로 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을 단단히 다잡아먹고’ 읽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며 또 ‘역지 번역’을 한다 하여 ‘원문의 힘찬 어감’을 보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역지 번역’을 하여 ‘원문의 힘찬 어감’을 보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기적이다. 그렇다면 중국 글에 또 무슨 ‘결합’이 있다고 하겠는가?” 내가 중국 글과 똑같은 외국 글을 찾거나 ‘두 가지 문자의 문법, 문장 구성, 어휘 구성이 완전히 일치하기’를 바랄 만큼 미련한 것 같지는 않다. 나는 문법이 복잡한 국어는 외국어를 번역하기가 보다 쉬우며, 어계(語系)가 가까운 것도 번역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역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덜란드어로 독일어를 번역하고 러시아어로 폴란드어를 번역하는 것이 그레 사업하지 않는 것과 차이가 없단 말인가? 일본어는 구미(歐

美어와 매우 ‘다르다’. 그러나 그들은 점차 새로운 문장 구성을 기침하여 고문으로 번역하기보다 더욱 쉽게 번역하면서도 원문의 힘찬 어감을 살렸다. 시초에는 물론 ‘문장 구성의 연결과 위치’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 불‘유쾌’한 감을 많이 주었지만 그렇게 찾으며 습관된 까닭에 지금은 이미 동화되어 자기의 것이 되어 버렸다. 중국의 문법은 일본의 고문보다도 완전하지 못했으나 역시 일부 변천이 있었다. 예를 들면 『사기(史記)』¹⁸⁾와 『한서(漢書)』¹⁹⁾는 『서경(書經)』²⁰⁾과 다르고 지금의 백화문은 또 『사기』나 『한서』와 다르다. 첨가된 것도 있고 만들어 낸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당나라 때에 번역한 ‘불경’이나 원나라 때에 번역한 상유(上諭)²¹⁾는 당시에 있어서 일부 ‘문법, 문장 구성, 어휘 구성’이 꼭 어색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데 습관이 되니 손가락으로 더듬어 찾지 않고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또 ‘외국문’이 들어와서 많은 문장 구성들을 새로 만들어야, 좀 나쁘게 말해서 역지로 만들어야 하게 되었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몇 개의 구절로 고쳐놓는 것보다 원문의 힘찬 어감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만들어 내야 하므로 본래의 중국 글은 결합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그 무슨 ‘기적’이란 것이 있고 무슨 ‘능기?’ 하고 물을 것이 있는가? 그러나 ‘손가락으

18) 서한의 사마천이 쓴 책이다.

19) 동한의 반고(班固)가 쓴 책이다.

20) 『상서(尙書)』인데 중국 상고시대의 역사 문헌과 고대 서적들을 회상하여 쓴 일부 저서들을 모아 묶은 책이다.

21) 중국에서는 동한 때부터 불경에 대한 번역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나라 때에 와서 새롭게 발전했다. 그 중 제일 유명한 것은 현장의 지도하에 번역된 불경 75부, 1,335권이다. 원나라 통치자들은 조서, 상소문, 관청의 서류들을 모두 몽골문으로 쓰고 한문의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강제적으로 규정했다. 당나라 때와 원나라 때의 이런 번역은 대부분 직역을 하여 원문의 일부 문법 구조를 보존했으며 어떤 어휘들은 한어로 음역했는데, 당시와 그 후의 한어 어휘와 문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로 더듬어 찾아야' 하고 '마음을 단단히 다잡아먹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물론 '유쾌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워낙 '상쾌'하거나 '유쾌'한 것을 그 제씨들에게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약간의 독자들에게 소득이 있을 수만 있다면 양실추 선생'들'의 고락이나 무소득 같은 것은 실로 "나에게 있어서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은 것"²²⁾이다.

그런데 양 선생은 본래는 무산문학 이론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으면 서도 의연히 그렇지 않은 점이 꽤나 된다. 예를 들면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노신 선생이 몇 년 전에 번역한 문학 작품, 예컨대 구리야가와 하쿠손의 『고민의 상징』²³⁾은 그래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것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와서 번역한 책들은 풍격이 개변된 듯하다."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중국 글과 외국 글은 같지 않으며' 같은 한 가지 외국 글이라 해도 저자의 각기 다른 수법으로 인해 '풍격'이나 '문장 구성의 연결과 위치'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것이다. 구절이 복잡할 수도 있고 간결할 수도 있으며, 상용명사를 많이 쓸 수도 있고 전용명사를 많이 쓸 수도 있는바 결코 같은 외국 글이라 하여 난이도가 꼭 같은 것은 아니다. 내가 『고민의 상징』을 번역할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구절을 따라, 심지어는 글자를 따라 축자식(逐字式) 번역을 했다. 그런데 양실추 선생이 갑자기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원문이 본래 알기 쉬웠던 까닭일 수도 있으며, 양실추 선생이 중국의 새로운 비평가인 까닭일 수도 있으며, 거기에 억지로 만들어진 문장 구성에 비교적 익숙해진 까닭일 수도 있다. 만일 삼가촌(三家村)의 전적으로 『고문관지(古文觀止)』²⁴⁾만 읽는

22) 이 말은 「논어」, 「술이(述而)」에 있다. 이 말에는 경사와 무관계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23) 구리야가와 하쿠손(藪川白村, 1880~1923)은 일본의 문예평론가이다. 그의 문예 논저 『고민의 상징』은 일찍이 노신이 중문으로 번역했는데 1924년 12월 북경 신조사에서 출판했다.

24) 청나라 강희 연간에 오초계(吳楚材), 오조후(吳調侯)가 선택 편집한 고문 독본인

학자들이 본다면 그것이 어찌 '천서(天書)'보다 더 어렵지 않겠는가?

3

그러나 이번의 '천서보다 더 어려운' 무산문학 이론의 번역본들은 도리어 양 선생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읽고도 이해하지 못한다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비록 우스꽝스러운 일 같지만 영향을 준 것만은 사실이다. 이 비평가는 「문학에 계급성이 있는가?」에서 "내가 지금 이른바 무산문학 이론을 비평하는 것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약간의 자료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²⁵⁾라고 했다. 이 말만큼 그만큼 이 이론에 대한 지식이 극히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죄과에 대해서 우리는(모든 '천서'의 번역자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한다) 일부분의 책임밖에 질 수 없으며 일부분은 작자 자신이 얼떨떨하고 게으른 탓이라고 해야 하겠다. '루나차르스키'²⁶⁾요,

데 선진(先秦) 때부터 명나라 때에 이르기까지의 산문 222편이 수록되어 있다.
25) 양실추가 말한 이 한 토막의 원문은 이러하다. "중국어로 번역된 무산계급 문학 이론 면의 책을 나는 약 10여 종 보았으며 이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선전하는 잡지도 두세 가지 보았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그들의 뜻을 알려고 했다. 그러나 매우 불행하게도 이런 유의 서적들 중에는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용이 심오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나의 학력이 부족한 탓이다. 그러나 루나차르스키, 플레하노프, 보그다노프 따위들이 선전한 책들에서 내가 제일 곤란을 느낀 것은 문자이다. 문법이 까다롭고 딱딱하며 문장이 복잡하여 읽기가 그야말로 천서보다도 더 힘들었다. 무산문학 이론을 선전하는 책인데 이렇듯 알아보기 어려운 선전품(宣傳品)이 될 자격마저도 없는 것 같다. 지금 중국인치고 중국인이 알아볼 수 있는 문자로 글을 써서 무산문학의 이론이 도대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다. 내가 지금 이른바 무산문학 이론을 비평하는 것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약간의 자료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26) 루나차르스키(1875~1933)는 소련의 문예평론가이다. 그는 소련의 제1임 교육인민위원으로 있었다. 그의 저서로는 『예술과 혁명』, 『실증미학의 기초』와 각본 『해

‘플레하노프’²⁷⁾요 하는 사람들의 저서에 대해서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보그다노프 따위’의 세 편의 논문²⁸⁾이나 트로츠키의 반부(半部)의 『문학과 혁명』²⁹⁾ 같은 것은 확실히 영어 번역본이 있다. 영국에는 ‘노신 선생’이 없으니 그 번역문은 매우 알기 쉬울 것이다. 양 선생은 위대한 무산문학의 탄생에 대해서 일찍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참을성과 용기를 과시했었는데, 이번에 그 이론에 대해서는 어찌서 좀 기다렸다가 찾아보고서 말하지 않는지. 있는 것을 모르고 찾아보지 않는 것을 일컬어 얼떨하다 하고, 있는 줄 알면서 찾아보지 않는 것을 일컬어 게으르다고 한다. 만일 가만히 앉아만 있다면 ‘상쾌’할 수도 있겠지만 입을 열게 되면 냉기가 들어가기 쉽다.

예를 들면 바로 『문학에 계급성이 있는가?』라는 그 대작의 결론은 계급성이 없다는 것이다. 계급성을 말살하는 데 가장 철저한 것은 “그 무슨

방편 돈 키호테』 등이 있다. 1929년 4월에 노신이 그의 『예술론』을 중국어로 번역했는데 그 해 6월에 상해 대강서점에서 출판했다.

27) 플레하노프(1856~1918)는 러시아의 초기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였는데 후에는 멘셰비키 및 제2인터내셔널 기회주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노신은 그의 초기의 마르크스주의 문예 논저들을 번역하여 책이름을 『예술론』이라고 달았다. 이 책은 1920년 7월 상해 광화서국에서 출판했다.

28) 보그다노프(1873~1928)는 소련의 관념론적 철학자이다. 한때 그는 볼셰비키에 가입했는데 1918년에 이른바 ‘무산계급 문화’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의 「무산계급 시가」, 「무산계급 예술의 비평」, 「종교, 예술과 마르크스주의」 등 3편의 논문은 일찍이 영문으로 번역되어 영국 런던의 월간 『노동』에 실렸다. 후에 소문(蘇汶)이 그것들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화실(畫室)이 번역한 「‘무산자 문화’ 선언」까지 합쳐 『신예술론』이란 책을 묶어내었는데 1929년 수말서점에서 출판했다.

29) 트로츠키(1879~1940)는 일찍이 러시아 혁명운동에 참가했으며 10월혁명 기간과 소비에트 러시아 초기에는 지도부에 참가했다. 1927년에 소비에트 정권을 반대했기 때문에 소련 공산당(볼셰비키)에서 제명당했으며 1929년에 외국으로 축출되어 1940년 멕시코에서 죽었다. 그의 『문학과 혁명』은 1925년에 미국 뉴욕의 국제출판사에서 영문판으로 출판되었다. 후에 이제야(李濟野), 위소원(韋素園)이 중국어로 번역했는데 1928년 2월에 북경 미명사(未名社)에서 출판했다.

마르크스인지 우크스인지”라고 한 오치휘³⁰⁾의 말과, 그리고 “세계에는 결코 계급이란 물건이 없다”라고 한 그 무슨 선생의 학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주둥아리가 소리를 내지 않고 천하가 태평할 것이다. 그러나 양 선생은 ‘그 무슨 마르크스’에게 좀 중독되었는지 우선 지금 허다한 곳에는 자산 제도가 있고 그 제도하에 무산자가 있다는 것을 승인했다. 그런데 이 “무산자는 본래 계급적 각성이 없었는데 동정심이 지나치게 많고 태도가 과격한 몇몇 수령들이 이런 계급 관념을 그들에게 전수하여”³¹⁾ 그들의 연합을 촉진하고 그들의 투쟁욕을 격발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나는 전수자들이 결코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세계를 개조하려는 사상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은 각성할 수도 없고 격발(激發)할 수도 없는데, 각성할 수 있고 격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본래 존재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본래 존재하는 것은 오래 덮어 감출 수 없다. 예를 들면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제기하고 다윈이 생물진화론을 제기했을 때 시초에는 종교인들에게 타 죽거나 타 죽을 뻔했고 보수파들의 대대적인 공격을

30) 오치휘(吳紉暉, 1865~1953)의 이름은 경항이며 강소성 무진 출신으로서 국민당 정객이다. 여기에 인용한 그의 망언은 1927년 5월 왕정위(汪精衛)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 있다.

31) 계급투쟁을 왜곡한 양실추의 이 한마디의 말은 「문학에 계급성이 있는가?」라는 글에 있다. “무산자는 본래 계급적 각성이 없었는데 동정심이 지나치게 많고 태도가 과격한 몇몇 수령들이 이런 계급 관념을 그들에게 전수했다. 계급적 관념은 무산자의 연합을 촉진하고 무산자의 투쟁 의욕을 격발하기 위한 것이다. 전도가 있는 무산자라면 오직 신중하고 성실하게 일생 동안 일을 해야 하며 그러면 적든 많은 동안에 상당한 자산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당한 생활투쟁의 수단이다. 그러나 무산자가 연합된 후에는 그들은 하나의 계급이 되고 조직이 있게 되고 하나의 집단이 된다. 이리하여 그들은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 일약 정권과 재산권을 탈취할 것이며 일약 통치계급이 될 것이다. 그들은 보복하려 한다. 그들의 유일한 보복 수단은 바로 사람이 많고 세력이 큰 데 의거하는 것이다. ‘다수’, ‘대중’, ‘집단’, 이것이 바로 무산계급의 폭동의 무기이다.”

받지 않았던가.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설에 대해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은 지구가 확실히 돌아가고 있고 생물이 확실히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없는 것으로 덮어 감추려 한다면 절묘한 재간이 없이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양 선생에게는 투쟁을 제거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 그는 마치 루소가 말한 것처럼 “자산은 문명의 기초”³²⁾이므로 “자산 제도를 공격하는 것은 곧 문명에 반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전도가 있는 무산자라면 오직 신근(辛勤)하고 성실하게 일생 동안 일을 해야 하며 그러면 적든 많은 간에 상당한 자산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당한 생활투쟁의 수단이다”라고 주장했다. 루소가 세상을 떠난 지 150년이나 되었지만 과거와 미래의 문명이 모두 자산을 기초로 한다고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그러나 만일 경제 관계를 기초로 한다면 그것은 물론 옳다). 그리스와 인도는 다 문명이 있었고 또 그 변영기는 모두 자산 사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아마 알고 있을 것이며, 모른다면 그것도 그의 잘못일 것이다. 무산자가 마땅히 ‘신근하게’ 유산계급으로 기어올라가는 ‘정당’한 방법에 대해 말하면 그것은 중국의 돈 있는 나라들이 흥이 났을 때 가난한 노동자들을 교시하는 교훈인데 사실에 있어서는 지금 한창 ‘신근하고도 성실하게’ 한 급 기어올라가려고 하는 ‘무산자’도 많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아무도 ‘이런 계급 관념을 그들에게 전수’ 해주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일단 그것을 전수하기만 하면 그들은 누구도 기어오르려 하지 않을 것이며 바로 양 선생의 말대로 “그들은 하나

32) 이 말은 루소가 1755년에 『프랑스 백과전서』를 위해 쓴 「정치경제학에 대하여」에 있다. 그 번역문은 응당 “재산은 문명 사회의 진정한 기초이다”로 되어야 한다. 양실추가 루소의 이 말을 왜곡하여 인용하면서 한 망언은 「문학에 계급성이 있는가?」에 있다.

의 계급이 되고 조직이 있게 되고 하나의 집단이 된다. 이리하여 그들은 정상적인 계급을 벗어나 일약 정권과 재정권을 탈취할 것이며 일약 통치 계급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신근하고 성실하게 일생 동안 일을 해야 하며 그러면 적든 많은 간에 상당한 자산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산자’가 있겠는가? 물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재산을 모으지 못한 유산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양 선생의 충고는 무산자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므로 나리들하고나 서로 칭송하며 감상하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양 선생은 근심할 것이 못 된다 고 여겼다. 왜냐하면 “이런 혁명적 현상은 영구하지 못할 것인바 자연 진화를 거친 후이면 그래도 총명하고 재질이 출중한 사람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무산자는 여전히 무산자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을 우승열패(優勝劣敗)의 법칙이 또다시 증명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산 계급도 아마 “반문명의 세력은 조만간 문명의 세력에 의해 정복”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문에 학술을 포함한 이른바 ‘무산계급 문화’를 건립하려 할 것이다.”³³⁾

이제부터 문에 비평의 본 제목으로 들어간다.

33) 이러한 말들도 「문학에 계급성이 있는가?」에 있다. “무산계급이 폭동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경제에 있다. 지난날의 통치계급의 부패, 정부의 무능, 진정한 수령의 결핍도 무산계급이 폭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혁명적 현상은 영구하지 못할 것인바 자연 진화를 거친 후에는 그래도 총명하고 재질이 출중한 사람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무산자는 여전히 무산자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을 우승열패의 법칙이 또다시 증명해 줄 것이다. 문명은 여전히 진행될 것이다. 무산계급도 아마 이 점을 알고 있을 것이며 폭전의 경제적 충족만으로는 이 계급의 승리가 영원히 담보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반문명의 세력은 조만간에 문명의 세력에 의해 정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무산계급은 근래에 ‘자본가를 타도하자’고 높이 부르짖는 외에 또 새로운 사업이 있게 되었다. 그들은 문에 학술을 포함한 이른바 ‘무산계급 문화’ 또는 ‘프롤레타리아 문화’를 건립하려 할 것이다.”

양 선생은, 우선 무산자 문학 이론의 오류는 “계급적 속박을 문학에 들 썬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자본가와 노동자는 다른 점이 있지만 같은 점도 있으며 “그들의 인간성(이 세 글자에는 본래 이중 방점이 있었다)은 결코 다르지 않다.” 예를 들면 모두 희로애락이 있고 모두 연애(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연애 그 자체이지 연애를 하는 방식 이 아니다”)가 있는데 “문학이란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을 표현하는 예술”이기 때문이다.³⁴⁾ 이런 말들은 모순되는 것이고 공허한 것이다. 문명은 자산을 기초로 했고 가난한 사람은 기어올라가야 ‘전도가 있다’고 한 이상 기어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도리일 것이고, 부호가 인류의

34) 이 말들도 「문학에 계급성이 있는가?」에 있다. “문학의 국토는 가장 넓은 것이어서 근본적인 면에서와 이론적인 면에서 국경이 없으며 계급의 경계선은 더구나 없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부동한 점이 있는바 유전이 다르고 교양이 다르고 경제적 환경이 다르며 따라서 생활의 태도도 다르지만 동일한 점도 있다. 그들의 인간성은 결코 다르지 않다. 모두 생로병사의 무상함을 느끼며 모두 사랑의 요구가 있으며 모두 연민과 공포의 정서가 있으며 모두 윤리 도덕 관념이 있으며 모두 심신의 유쾌함을 바란다. 문학이란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인성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무산계급의 생활 고통은 물론 묘사할 만하지만 그 고통이 정말로 심각한 것이라면 그것은 꼭 어느 한 계급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 현상의 허다한 면들은 초계급적인 것이다. 예컨대 연애(내가 말하는 것은 연애 그 자체이지 연애를 하는 방식이 아니다)의 표현에 계급적인 구별이 있단 말인가? 예컨대 산수와 화초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데 계급적인 구별이 있단 말인가? 없다. 가령 문학이 생활 현상의 표면을 묘사하는 데 불과한 것이라면 우리는 문학에 계급성이 있다는 것을 승인할 수 있으며 무산문학에 그 이론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학은 이처럼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이다. 가령 ‘굴뚝이여!’, ‘기적 소리여!’, ‘기선이여!’, ‘레닌이여!’ 하는 것이 곧 무산문학이라면 무산문학은 저절로 생겨났다가 저절로 없어지게 될 것이므로 아무런 이론도 필요 없는 것이다. 나는 문학의 소재를 한 계급의 생활 현상의 범위에 국한시킨다면 그것은 실로 문학을 너무도 피상적인 것으로 보며 너무도 협소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존일 것인즉 문학은 자산계급만 표현해도 될 것인데 하필 그렇듯 ‘동정심이 지나치게 많아’ ‘열패(劣敗)하는 무산자까지 포괄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성’ ‘자체’는 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예를 들어 원질(原質) 혹은 잡질(雜質)의 화학적 성질에는 화합력이 있고 물리학적 성질에는 경도가 있는데 그것들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두 가지 물질을 가지고 서야 표현할 수 있다. 물질을 쓰지 않고 화합력과 경도 그 ‘자체’를 나타내는 그런 묘책은 없다. 그러나 일단 물질을 이용하면 그 현상은 또 물질에 따라 다르게 된다. 문학도 사람을 쓰지 않고는 ‘성(性)’을 표현할 길이 없으며, 일단 사람을, 그리고 계급사회에서의 사람을 쓰면 절대 그의 계급적 속성을 버릴 수 없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 필연적인 것이므로 ‘속박’을 들쩍을 필요가 없다. 물론 ‘희로애락은 사람의 상정(常情)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거래소의 손실로 인해 고민하는 것과 같은 일이 없을 것이며, 석유 대왕은 북경 거리에서 채 타지 않은 탄재를 줍는 할머니의 고통을 알 리 만무할 것이며, 재해 지구의 이재민들은 부잣집 나리들처럼 난초를 심지 않을 것이며, 가부(賈府)의 초대(焦大)도 임대옥(林黛玉)을 사랑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적 소리여!’, ‘레닌이여!’ 하는 것이 곧 무산문학은 아니지만 ‘모든 물건이여!’, ‘모든 사람이여!’, ‘기쁜 일이 생겨 사람들이 기뻐한다!’ 하는 것도 ‘인간성’ ‘자체’를 표현하는 문학은 아니다. 만일 가장 보편적인 인간성을 표현하는 문학을 지상의 것이라 한다면 가장 보편적인 동물성—영양, 호흡, 운동, 생식—을 표현하는 문학 또는 운동을 제외한 생물성을 표현하는 문학이 오히려 그 이상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성만을 표현해야 한다고 한다면 무산자는 무산계급이기 때문에 무산문학을 써야 하는 것이다.

다음 양 선생은 작가의 계급은 작품과 관계가 없다³⁵⁾고 했다. 톨스토이는 귀족 출신으로서 빈민을 동정했지만 계급투쟁을 주장하지는 않았

며, 마르크스는 결코 무산계급의 인물이 아니었으며, 평생을 가난하게 산 존슨³⁶⁾ 박사의 지향과 언행은 귀족을 능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 작품을 평가할 때에는 그 작품 자체를 보아지 작가의 계급과 신분에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예들은 죄다 문학의 무산계급성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톨스토이는 바로 귀족 출신이고 낮은 계급성이 깨끗이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빈민을 동정하는 데 그치고 계급투쟁은 주장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본래 무산계급의 인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문학 작품이 없으므로 우리는 그가 작품을 썼더라면 꼭 방식을 제외한 연애 자체를 표현했을 것이라고 허망한 추측을 할 수 없다. 존슨 박사가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의 지향과 언행이 왕후를 능가했다는 데 대해서는 나는 정말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영국의 문학과 존슨 박사의 전기를 모르기 때문이다. 아마 그가 본래는 “신근하고 성실하게 일생 동안 일을 해야 하며 그러면 적든 많은 간에 상당한 자산을 모을 수 있다”고 여기고 귀족계급에 기어올라가려 하다가 예상외로 결국 ‘열패’가 되어 상당한 자산도 모으지 못해서 그저 틀거리만 차리면

35) 양실추는 「문학에 계급성이 있는가?」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학가는 바로 다른 사람보다 감정이 풍부하고 감각이 예민하고 상상력이 발달하고 예술이 완미한 사람이다. 그가 자산계급에 속하건 무산계급에 속하건 그것이 그의 작품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톨스토이는 귀족 출신으로서 평민에 대한 동정심이 실로 한량 없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계급투쟁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신명으로 떠받드는 마르크스 그 자신은 결코 그 무슨 무산계급의 인물이 아니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산 존슨 박사의 지향의 고결함과 언행의 우아함은 귀족들을 능가하면 능가했지 그들보다 못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문학의 성격과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다만 문학 작품 자체를 두고 입론(立論)해야지 작자의 계급과 신분에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

36) 존슨(S. Johnson, 1709~1784)은 영국의 작가이며 문학비평가이다. 서점 주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일찍이 글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후에 혼자서 첫 『영어 사전』을 편찬하여 황실에서 존중을 받고 정부의 연금을 받았으며 이로부터 자산계급 상층 사회에 드나드는 ‘명류’가 되었다.

서 ‘상쾌’해했는지도 모른다.

그 다음 양 선생은 “훌륭한 작품은 영원히 소수인의 전매 특허가 된다. 대다수 사람은 영원히 우둔하고 영원히 문학과 인연이 없다”라고 했으며 “문학을 감상하는 것도 한 가지 타고난 복³⁷⁾이어서 무산계급이라 할지라도 이런 ‘타고난 복’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상 능력의 유무는 계급과 관계가 없다고 했다. 내가 추론한다면 가난하여 교육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일자무식이라 해도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이면 월간 『신월』을 감상할 수 있으니 이것은 곧 ‘인간성’과 문예 ‘자체’는 본래 계급성이 없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양 선생도 이런 복을 타고난 무산자가 틀림없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통속적인 희곡이요, 영화요, 탐정소설이요 하는 등속”의 다른 물건(문예?)을 보여주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일반 노동자나 농민에게 오락이 수요되며 소량의 예술적 오락도 수요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문학은 확실히

37) 여기에 인용한 말들도 「문학에 계급성이 있는가?」라는 글에 있다. 원문은 이러하다. “훌륭한 작품은 영원히 소수인의 전매 특허가 된다. 대다수 사람은 영원히 우둔하고 영원히 문학과 인연이 없다. 그러나 감상 능력의 유무는 계급과 관계가 없다. 귀족, 자본가라 할지라도 문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며 무산자라 할지라도 문학을 감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문학을 창조하는 것은 물론 천재이지만 문학을 감상하는 것도 한 가지 타고난 복이다. 그러므로 문학의 가치는 결코 독자의 다소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일반 노동자나 농민에게 오락이 요구되며 소량의 예술적 오락도 요구될 것이다. 예를 들면 통속적인 희곡이요, 영화요, 탐정소설이요 하는 등속이다. 대다수 사람들을 위한 문학은 필연코 대중의 비위에 맞춘 것이며 융화한 것이며 친박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학가들에게 이런 투기적인 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황실 귀족들이 무료한 문인들을 고용하여 공덕을 구가하는 시와 글을 쓰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뜰게 본다. 왜냐하면 이런 문학은 허위적인 것이며 낡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산계급의 위협을 받아서 무산계급의 공덕을 구가하는 문학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허위적이고 알뜰한 것이 아닌가? 문학가는 오로지 정신을 몰두하여 창작할 줄밖에 모른다. ……그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면 어느 계급에 속하든 불문하고 그의 지기의 벗이 될 것이다. 문학은 전 인류에 속하는 것이다.”

히 계급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감상 능력의 높고 낮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이런 능력의 수양은 경제와는 관계없고 하느님께서 준 '복'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가는 자유로 창조해야지 황실 귀족에 고용되거나 무산계급의 위협을 받아서 공덕을 구가하는 글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본 무산문학 이론에는 그 누구도 어느 한 계급의 문학가가 황실 귀족에 고용되지 말고 무산계급의 위협을 받아서 공덕을 구가하는 글을 써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다만 문학에는 계급성이 있으므로 계급사회에서는 문학가가 비록 스스로 '자유'라고 생각하고 계급을 초월했다고 생각해도 결국은 무의식중에 본 계급의 계급의식의 지배를 받게 되어 그의 창작이 다른 계급의 문화가 될 수 없다고 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양 선생의 이 글도 그 본의는 문학의 계급성을 취소하고 진리를 선양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자산을 문명의 선조라 하고 가난한 사람을 열패의 찌꺼기라 한 그것을 보기만 해도 이것은 자산가의 투쟁의 '무기', 아니 '글'임을 알 수 있다. 무산문학 이론가가 '전 인류'요, '초계급'이요 하는 것을 주장하는 문학이론을 유산계급을 도와주는 물건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 명백한 예증을 여기서 보게 된다. 성방오³⁸⁾ 선생처럼 "그들은 꼭 승리할 것이므로 우리가 가서 그들을 지도하고 위안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가서'는 자기들 이외의 '그들'과 같은 무산문학가를 '쫓아보내'겠다는 데 대해 말하면 그것도 더 말할 것 없이 양 선생과 같이 무산문학 이론에 대해 '저 좋을 대로 생각하는' 오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8) 성방오(成仿吾)는 필명이 석후생(石厚生)이다. 그는 호남성 신화 출신으로서 문학비평가이며 창조사의 주요 성원이다. 그는 『문화비판』 제2호(1928년 2월)에 실린 「그들을 쫓아보내자」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봉건사상, 부르주아의 근성과 그들의 대면인들을 죄다 찾아내어 그들에게 정확한 평가를 내린 다음 그들의 짐을 꾸러서 그들을 쫓아보내야 한다."

또 그 다음 양 선생이 가장 중요하는 것은 무산문학 이론가들이 문예를 투쟁의 무기로 즉 선전품으로 삼는 점이다. 그는 "어떤 사람이든 문학을 이용하여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선전하는 식의 글이 곧 문학이라는 것은 승인할 수 없다"³⁹⁾라고 했다. 이것은 스스로 혼란을 조성하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본 그런 이론들에 근거하면 모두 문예는 반드시 선전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고 했지 그 누구도 선전하는 식의 글이면 곧 문학이라고 한 사람은 없다. 물론 재작년부터 중국에는 많은 시가와 소설들에 구호와 표어를 집어넣고 스스로 무산문학이라고 여기는 것이 확실히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용과 형식에 모두 무산계급 맛이 없어 구호와 표어를 쓰지 않고서는 그 '신흥(新興)'을 나타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 그것도 실상은 무산문학이 아니다. 금년에도 저명한 '무산문학의 비평가'인 전행춘⁴⁰⁾ 선생은 『척황

39) 여기에 인용한 말들도 「문학에 계급성이 있는가?」라는 글에 있다. 원문은 이러하다. "무산계급 이론가들은 늘 우리에게 문예는 그들의 투쟁의 '무기'라고 알려 주고 있다. 문학을 '무기'로 삼고 있다! 그 뜻은 아주 명백하다. 말하자면 문학을 선전품으로 삼으며 계급투쟁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문학을 이용하여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것은 문학 자체에 해로움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선전하는 식의 글이 곧 문학이라는 것은 승인할 수 없다."

40) 전행춘(錢杏邨, 1900~1977)의 필명은 아영(阿英)이다. 그는 안휘성 무호 출신으로서 문학가이며 태양사의 주요 성원이다. 그는 『척황자』 제1호(1930년 1월)에 실린 「중국 신흥문학에서의 몇 가지 구체적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문학(표어나 구호식의 문학을 가리킨다)은 비록 여러 면에서 매우 유치하지만 대중을 충분히 선동할 때도 있다. 루나차르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복잡하고 존귀한 사회의 내용을 천백만 사람들이 다 감동할 수 있는 강력한 예술의 단순성으로 표현하는 그런 작가에게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실사 비교적 단순하고 비교적 초보적인 내용에 의거했다 할지라도 이 수백만 대중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작가에게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작가에 대해 마르크스주의 비평가들은 매우 높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과학적인 문예 비평의 임무에 관한 개요』). 부르주아에게 모욕당하고 있는 '구호나 표어식의 문학'에 대해 우리는 한편으로 그 유치함을 인정하지

자⁴¹⁾에 쓴 글에서 루나차르스키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는 루나차르스키가 대중에게 해득되기 쉬운 문학을 중시한 것으로 보아 구호나 표어를 쓰는 것도 과히 비난할 바가 못 된다고 하면서 그런 ‘혁명문학’을 위해 변호했다. 그러나 이 역시 양실추 선생과 마찬가지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곡해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루나차르스키가 말한 이른바 대중에게 해득되기 쉬운 것이란 톨스토이가 농민들을 위해 쓴 그런 책과 같은 문체를, 노동자나 농민이 보기만 하면 환히 알 수 있는 어법, 노래와 해학적인 것을 가리킨다. 데미안 베드니(Demian Bednii)⁴²⁾가 시가로 적기 훈장을 받았지만 그의 시에는 표어와 구호가 없다는 것만 보아도 명백하다.

마지막으로 양 선생은 실물을 보려고 한다. 이것은 옳은 것이며 가장 절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번역한 시 2수를 빼껴서 사람들에게 시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신월』에도 일찍이 「번역의 어려움에 대하여」⁴³⁾란 글이 실렸는데 허물며 번역한 글이 시임에랴. 내가 본 것을 놓고 말하면 루나차르스키의 『해방된 돈 키호테』, 파테예프의 『괴멸』⁴⁴⁾ 글라드코프의

않을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도 없다.”

41) 『척황자(拓荒者)』는 문예 월간이다. 장광자(蔣光慈)가 편집한 이 월간은 1930년 1월 상해에서 창간되었는데 ‘좌익작가동맹’이 성립된 후에는 ‘좌익작가동맹’ 기관지의 하나가 되었다. 그해 5월에 제4·5호 합본을 출판한 후에는 국민당에 출판금지령을 당했다.

42) 데미안 베드니(1883~1945)는 소련의 시인이다. 소련 국내전쟁 시기에 그는 혁명을 구가하고 원수를 풍자한 정치 선동시를 적지 않게 썼다. 1923년 4월 전러중앙집행위원회 주석단에서는 그에게 붉은기훈장(즉 적기훈장)을 수여했다.

43) 호적의 「번역에 대하여」라는 글을 가리키는데 『신월』 제1권 제11호(1929년 1월)에 실렸다. 그 가운데는 “번역은 어려운 일이라서 아무도 오류를 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44) 파테예프(1901~1956)는 소련의 작가이다. 그의 작품으로는 장편소설 「괴멸」, 「청년근위군」 등이 있다. 「괴멸」은 일찍이 노신이 중문으로 번역했는데 1930년 1월부터 『맹아 월간』에 「괴멸(潰滅)」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다. 1931년 「삼한서옥(三

시멘트」⁴⁵⁾를 들 수 있는데 중국의 최근 11년 동안의 작품으로는 그것들과 비길 만한 작품이 없다. 이것은 자산계급 문명의 덕을 보고 또 충심으로 그것을 옹호하는 ‘신월사’ 일파의 작가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무산 작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작품 중에서도 나는 그럴듯한 성적을 들 수가 없다. 그런데 전행춘 선생도 일찍이 신흥계급은 물론 문학에 대한 소양이 유치하고 단순하므로 그들에게서 당장 좋은 작품을 요구하는 것은 ‘부르주아’의 악의⁴⁶⁾라고 변호하여 말한 적이 있다. 농민이나 노동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매우 지당하다. 이런 무리한 요구는 마치 그들을 오랫동안 떨고 굶주리게 해놓고 오히려 어째서 부자들처럼 그렇게 살이 찌지 못했느냐고 다그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중국의 작가들 가운데는 정말로 방금 손에서 호미 자루를 놓은 사람이 없으며 대부분은 학교를 다닌 지식인들이고 일부는 또 일찍부터 이름이 있는 문인들인데 그들이 소자산계급의 의식을 극복하자 본래 있던 문학 재능마저 함께 잃어버렸단 말인가? 그럴 수 없다. 러시아의 노작가 알렉세이 톨스토이와 베레예프, 프리시빈⁴⁷⁾은 오늘날까지도 모두 좋은 작품을 쓰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구호만 있고 그에 따르는 실증이 없는 것은 그 화근이 ‘문예를 계급투쟁의 무기로 삼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을 빌려 문예의 무기로 삼은 데’ 있으며 ‘무산자 문학’의 기치 아래 곤두박질을 잘하는 사람들이

閉書屋)의 이름으로 단행본을 출판할 때에는 제목을 ‘폐멸(毀滅)’로 고쳤다.

45) 글라드코프(1883~1958)는 소련의 소설가이다. 「시멘트」는 소련의 경제 부흥을 묘사한 그의 장편소설이다.

46) 전행춘은 「중국 신흥문학에서의 몇 가지 구체적 문제」에서 「구호나 표어식의 문학」에 대한 노신, 모순 등의 비평을 「프롤레타리아 문단」에 대한 ‘중국의 부르주아 작가’의 ‘악의적인 조소’라고 했다.

47) 알렉세이 톨스토이(1883~1945), 베레사예프(1867~1945), 프리시빈(1873~1954)은 모두 10월혁명 전에 벌써 이름을 날렸으며 혁명 후에도 창작 활동을 계속한 작가들이다.

적지 않게 모인 데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난해의 신간서적 광고를 보면 혁명문학이 아닌 것이 거의 한 책도 없다. 비평가들은 또 단지 변호를 '총평'으로 삼았을 뿐이다. 즉 문학의 '계급투쟁'의 엄호하에 모셔다 앉혀 놓았다. 이리하여 문학은 자신이 힘을 들일 필요가 없게 되었고 문학과도 투쟁과도 모두 관계가 적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목전(目前)의 일시적인 현상은 물론 무산문학의 신흥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는 전혀 없다. 양 선생도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무산 계급 혁명기들이 기어오르면 자신들의 선전문학을 무산문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쨌든 신흥문학의 일종이라고 칠 수 있으며 어쨌든 문학 국토에서 거둔 새로운 수확이라고 칠 수 있으므로 자산문학을 타도하겠다고 높이 외치면서 문학의 영역을 쟁탈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문학의 영역은 대단히 커서 새로운 것은 언제나 그 자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⁴⁸⁾ 그러나 이것은 흡사 '중일친선, 공존공영'이라는 말과 비슷한 것이어서 아직 날개가 풍만하지 못한 무산자의 견지에서 보면 일종의 기만이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무산문학자'가 아마 지금 실제로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양 선생이 말하는 이른바 '전도가 있는', 자산계급에 기어올라 가려는 '무산자' 따위들이다. 그의 작품은 장원급제를 못한 가난한 수재의 뉘그러일 것이며 처음에도 기어오르기까지도, 기어올라간 후에도 그것은 결코 무산문학이 아니다. 무산자 문학이란 자기들의 힘으로 자신의 계급 및 모든 계급을 해방하기 위해 투쟁하는 일익으로서 그것이 요구하는 것은 전체 영역이지 어느 한 구석자리가 아니다. 문예비평계를 놓고 말해보자. 가령 '인간성'이란 '예술의 궁정'⁴⁹⁾(이 말은 성방오 선생한테서

48) 이러한 말들도 「문학에 계급성이 있는가」라는 글에 있다.

49) 성방오는 주간 『창조』 제2권 제2호(1924년 1월)에 발표한 『『외침』의 평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신의 역사소설 「불주산(不周山)」(후에 「하늘을 보수하다(補天)」

잠시 빌려다 써야겠다)에다 남쪽을 향해 호피 교의(交椅) 두 개를 놓은 다음 양실추, 전행촌 두 선생을 모셔다가 나란히 앉혀놓고 하나는 오른손에 '신월'을 쥐고 있고 하나는 왼손에 '태양'을 쥐고 있게 한다면 그야말로 '노자(勞資)'가 어깨를 겨루는 셈이 아니겠는가.

5

이제는 또 나의 '역지 번역'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미루어 생각해보면 이러한 문제가 으레 따라서 제기될 것이다. 즉 무산문학은 선전을 중요시하고 선전은 반드시 대다수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이런 '역지 번역'으로 인해 알기 힘든 이른 '천서(天書)'는 대체 무엇 때문에 번역했는가? 그것은 번역하지 않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나의 대답은 이러하다. 그것은 나 자신과 그리고 몇몇 무산문학 비평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이며, 또 '상쇄'하기를 바라지 않고 곤란을 무릅쓰고 이 이론을 다소나마 알고 싶어하는 일부 독자들을 위해서이다.

제작년부터 나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주 많아졌다. 어느 간행물에서나 거의 다 '노신'이란 이름을 볼 수 있는데 그 필자들의 말투를 보면 언뜻 보아도 대개가 다 혁명문학가인 듯하다. 그러나 나는 몇 편을 읽어보고 쓸데없는 군소리가 너무 많다고 느꼈다. 해부도가 요해처를 찌르지 못했고 탄알도 치명적인 곳을 명중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느 계급에

로 고쳤다)은 '비록 만족스럽지 못한 점들이 아직 있긴 하지만' 작가가 '순수 문예의 궁정에 들어가려 했음'을 보여주는 '결작'이다.

50) 장광자(蔣光慈), 전행촌(錢杏邨) 등이 조직한 문학단체인 태양사를 은유한다.

속하느냐 하는 문제만 해도 지금까지 판정되지 못했다. 혹 소자산계급이라고도 하고 혹 '부르주아'라고도 하며 때로는 '봉건 여열(封建餘孽)'⁵¹⁾이라고까지 하는가 하면 오랑우탄과 같다(월간 『창조』에 실린 「도교 통신」을 보라)고도 했으며, 한번은 내 이빨의 색깔에 대해서까지 욕하는 것이었다. 이런 사회에서 봉건 여열들이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봉건 여열이 곧 오랑우탄이라는 것은 어떤 '유물사관'에서도 그런 설명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빨의 색깔이 누르면 무산계급 혁명에 해롭다는 논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참고로 제공할 만한 이런 이론이 너무나도 적은 탓에 여러분들이 좀 떨떨해지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했다. 적을 해부하고 씹고 하는 것은 지금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해부학이 있고 요리법이 있어서 그 법대로 한다면 구조도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고 맛도 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왕왕 신화에 나오는 Prometheus⁵²⁾를 혁명가에 비겨 불을 훔쳐다가 인류에게 준 까닭에 하늘의 학대를 받았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그 큰 건인성이 같다고 여긴다. 그러나 내가 다른 나라에서 불을 훔쳐온 본의는 나의 삶을 삶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맛이 괜찮다면 아마 그것을 씹어먹는 사람들에게도 꽤 좋은 점이 있을 것이고 나도 몸을 헛되이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

51) 월간 『창조』 제2권 제1호(1928년 8월)에 실린 두전(杜銜, 광말약)의 「문예전선에서의 봉건 여열」이라는 글에 나와 있다. 이 글에서는 노신을 '자본주의 이전의 봉건 여열의 하나'라고 모욕했다. 이 글에서는 또 노신이 과거에 진서형, 고장홍과 별인 논전을 "오랑우탄과 오랑우탄이 싸운 것"이라고 했다. 아래에 나오는 '이빨의 색깔에 대해서까지 욕한' 말은 『유사(流沙)』 제3호(1928년 4월)에 심광(心光)이란 필명으로 발표한 「상해에서의 노신」이라는 글에 있다. 이 글에서는 "온통 누런 이빨을 드러내놓고 냉소를 던지고 있다"라고 노신을 욕했다.

52)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신이다. 전설에 의하면 프로메테우스는 주신(主神) 제우스에게서 불을 훔쳐다가 인류에게 준 까닭에 제우스의 징벌을 받았는데 제우스는 그를 카프카스 산의 바위에 단단히 못으로 박아 놓고 독수리들에게 그의 간장을 쪼아먹게 했다고 한다.

다. 출발점은 전적으로 개인주의적이었으며 거기에는 또한 소시민적인 사치심과 해부도를 천천히 꺼내어 도로 해부자의 심장을 찌르려는 '보복심'도 섞여 있는 것이다. 양 선생은 "그들은 보복하려 한다!"고 했지만 어찌서 '그들'뿐이겠는가. 이런 사람은 '봉건 여열'들 속에도 매우 많다. 그러나 나도 사회적으로 다소나마 쓸모가 있게 되기를 바라며 관객들이 본 결과가 의연히 불과 빛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선 손을 댄 것이 『문예정책』⁵³⁾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각파의 의론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정백기(鄭伯奇) 선생이 지금은 책방을 운영하고⁵⁴⁾ Hauptmann⁵⁵⁾과 Gregory 부인⁵⁶⁾의 극본을 출판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아직 혁명문학가였다. 그는 자기가 편집한 『문예생활』⁵⁷⁾에서 내가 이 책을 번역하는 것은 남에게 뒤지기 싫어서 한 것인데 애석하게도 다른 사람이 선수를 치고 말았다고 비웃었던 것이다. 책 한 권을 번역하여 곧 출세할 수 있다면 혁명문학가가 되기란 그야말로 너무도 쉬운 일일 것이다. 나는 결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한 작은 신문에서는 내가 『예술론』을 번역한 것은 '투항'이라고 했다.⁵⁸⁾ 그렇다, 세상에는 투항하는 일이 흔히 있다. 그러나

53) 노신이 1928년에 번역한 소련의 문예정책에 관한 문헌집인데 그 내용은 「문예에 대한 당의 정책에 관하여」(1924년 5월 러시아공산당(불세비키) 중앙위원회에서 소집한 문예정책에 관한 토론회의 기록), 「의식 형태 전선과 문학」(1925년 1월에 열린 제1차 무산계급작가대회의 결의), 「문예 영역에서의 당의 정책에 관하여」(1925년 6월에 채택한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의) 등 세 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이 문헌들은 일본의 소도무라 시로(外村史郎), 구라하라 고레히토(藏原惟人)가 편집, 번역한 일본어 판본에 근거하여 중역한 것인데, 월간 『분류(奔流)』에 연재되었으며 1930년 6월에 수말서점에서 출판했다.

54) 정백기(1895~1979)는 섬서성 장안 출신으로서 작가이며 창조사의 성원이다. 그 때 그는 상해에서 문헌서방(文獻書房)을 운영하고 있었다.

55) 하우프트만(1862~1946)은 독일의 극작가이다.

56) 그레고리 부인(1852~1932)은 아일랜드의 극작가이다.

57) 창조사 후기의 문예 주간이며 정백기가 편집했다. 1928년 12월에 상해에서 창간되어 도합 4호를 내었다.

그때 성방오 원수는 벌써 일본 온천에서 기어 나와 파리의 여관에 들어 있었는데 내가 또 누구에게 가서 투항하겠는가. 금년에는 또 논조가 달라졌다. 『척황자』와 『현대소설』에서는 모두 ‘방향 전환’⁵⁸⁾이라고 했다. 나는 일본의 어떤 잡지에서 이 말을 이전에 신감각파이던 가다오카 텃베이⁶⁰⁾에게 붙인 것을 보고 훌륭한 명사(名詞)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기실 이런 분분한 논조들은 역시 이름만 보고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은 오랜 병근에서 오는 것이다. 무산문학에 관한 책 한 권을 번역한 것을 가지고는 방향을 증명할 수는 없으며 만일 오역이라도 있다면 오히려 폐해가 될 수 있다. 내가 번역한 책은 바로 이런 속단적인 무산문학 비평가들에게도 주려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상쾌’하기를 탐내지 않고 고심하게 이런 이론을 연구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고의적인 오역은 없다고 자신한다. 내가 탄복하지 않는 비평가들의 상처를 건드렸을 때에는 나는 웃어버렸고 나의 상처를 건드렸을 때에는 아픔을 참으면서도 결코 더 보태거나 줄이지 않았다. 이것은

58) 이 말은 1929년 8월 19일 상해의 작은 신문 『진보(眞報)』에 게재된 상문(尙文)의 「노신은 북신서국과 결별했다」라는 글에 있다. 이 글에서는, 노신은 창조사의 ‘비판’을 받은 후 “금년에도 붓을 들어 혁명예술론을 한 권 번역함으로써 투항의 뜻을 표시했다”라고 했다.

59) 『척황자』 제1호(1930년 1월)에 실린 전행촌의 「중국 신흥문학에서의 몇 가지 구체적 문제」에서는 “……지금 ‘전환 중’에 있는 노신을 놓고 보더라도 ‘문필의 줄렬함은 신문의 소식보다도 못하다’는 따위의 풍자의 글을 쓴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현대소설』 제3권 제3호(1929년 12월)에 실린 강과륜(剛果倫)의 「1929년 중국 문단의 회고」에서도 “노신이 우리에게 준 것은 그가 방향을 전환한 후에 번역한 프로문예에 관한 작품뿐이다”라고 말했다. 『현대소설』은 문학 월간이며 엽명봉이 편집했다. 이 월간은 1928년 1월 상해에서 창간되어 1930년 3월까지 제3권 제6호를 내고 정간되었다.

60) 가다오카 텃베이(片岡鐵兵, 1894~1944)는 일본의 작가이다. 그는 1924년에 잡지 『문예시대』를 창간하고 이른바 ‘신감각파’ 문예운동에 종사했으며 1928년 후에는 진보적인 문예 진영으로 전향한 적도 있었다.

내가 시종 ‘역지 번역’을 하는 원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물론 세상에는 언제나 꼭 비교적 훌륭한 번역자가 나타나서 오역하지도 않고 ‘역지’거나 ‘기계적’이 아닌 글로 번역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때에 가면 나의 번역본은 물론 도태되고 말 것이다. 나는 그저 ‘없는’ 데에서 ‘비교적 좋은’ 것에 이르는 사이의 공간을 메우려 할 따름이다.

세상에는 종이 많은데 모든 문학단체들에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뜻은 크지만 힘이 미치지 못해서 그 종이를 다 쓰지 못한다. 이리하여 한 문학단체에서 적을 치고 빗을 도우며 이단을 소탕할 직무를 맡은 비평가들은 다른 사람이 종이에 글을 쓰는 것을 보면 개탄을 금치 못하며 머리를 젓고 발을 구른다. 상해 『신보(申報)』⁶¹⁾에서는 심지어 사회과학 번역자를 “개요, 고양이요”⁶²⁾ 하는 정도로까지 분개하고 있다. “중국 신흥문학의 지위는 벌써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졌다”라고 한 장광자(蔣光慈)⁶³⁾ 선

61) 『신보(申報)』는 중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 신문으로서 자산가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1872년 4월 30일 상해에서 창간되어 1949년 5월 26일에 정간되었다. 이 신문의 최초의 내용을 보면 국내외의 소식과 기사를 제외하고도 죽지사(竹枝詞), 속담, 수수께끼, 시문의 창화(唱和) 같은 것을 실었다. 이런 작품들의 투고자들은 대부분 그때의 이른바 ‘재자’들이었다(북경에서 발행된 『신보(晨報)』와 구별해야 한다—편집자 주).

62) 1930년 1월 8일자 『신보』, 『예술계』(국민당 문화특무 주용봉이 주필이었다) 「여담(餘談)」란에 실린 진결(陳毅)의 「사회과학 서적의 온역(瘟疫)」이란 글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을 번역하고 전파하는 것을 공격했다. “고양이도 사회과학의 이론을 한 권 발표했고 개도 사회과학 요강을 한 책 발표했다. 고양이와 개가 차차 연합하여 사회과학 대전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으니 난잡한 사회과학 서적들의 온역이 만연하게 되었다.” 그 달 16일 같은 간행물에 실린 척연(倬然)의 「창작 몇 가지」에도 유사한 말들이 있다. “고양이와 개들까지 자기도 모르는 사회과학 책을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현 시대가 사회과학 시대라는 것을 확신했다.”

63) 장광자(蔣光慈, 1901~1931)를 가리킨다. 그의 이전의 이름은 장광적(蔣光諭)이다(대혁명 실패 후에 ‘적’을 ‘자’로 고쳤다). 그는 안휘성 육안 출신으로서 작가이며 태양사의 주요 성원이다. 소련 유학을 했다. 그의 저서로는 시집 『새 꿈』, 소설 『짧은 바지당』, 『전야의 바람』 등이 있다. 여기에 인용한 장광자의 말은 『척황자』 제1

생이 일찍이 일본 도쿄에서 휴양할 때 구라하라 고레히토(64)를 만났었는데 그가 일본의 허다한 번역작품들은 줄여들이어서 실로 원문을 읽기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나…… 그 일본인은 웃으면서 “……그렇다면 중국의 번역계는 더욱 한심합니다. 근래 중국의 많은 서적들은 모두 일본어에서 번역한 것인데 만일 일본인이 유럽 어느 나라의 작품을 번역하는 데 착오가 있거나 삭제하고 고쳐버린 곳이 있을 경우에 일본어에서 다시 중국어에 번역해 간다면 어찌 그 작품의 원 모습이 절반쯤 변해버리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척화자』 참조). 이것은 번역 특히 중역(重譯)을 극히 불만스럽게 생각한다는 표시이다. 그래도 양 선생은 책이름을 들고 그의 단점을 지적했는데 장 선생은 그저 보기 좋게 웃어버리며 남김없이 한 몽둥이에 쳤으니 정말 보편성이 광대하다고 하겠다. 구라하라 고레히토는 많은 문예 이론과 소설을 직접 러시아어에서 번역했는데 나 개인에게는 큰 도움이 있었다. 나는 중국에도 ‘망할 자식’ 하고 욕하는 것으로 혁명문학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여기지 않는 이런 성실한 러시아어 번역자가 한두 사람 나와서 잇달아 좋은 책들을 번역해 냈으면 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이러한 것들을 양실추 선생은 번역하지 않으며 남을 ‘개요 고양이요’ 하는 그런 위인들도 번역하지 않는다. 본래는 러시아어를 아는 장 선생이 적임자이지만 애석하게도 그는 병을 다 치료한 다음 일본에는 벌써 두 가지 번역본이 있는 『일주간(一周間)』(65)이란 책 한 권밖에 번역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다윈과 니체를 크게 운운했는데 유럽 전쟁이 일어나자 그들을 한바탕 크게 욕했다. 그러나 다윈 저작의 번역본은 지금까지 한 가지밖에 없으며(66) 니체의 것은 반 부

호(1930년 1월)에 발표한 그의 글 「도쿄 여행」에 있다.

64) 구라하라 고레히토(藏原惟人)는 일본의 문예평론가이며 번역가이다.

65) 소련 국내전쟁을 소재로 한 중편소설이다. 소련의 리베진스키가 쓴 것인데 장광자가 번역했다. 1930년 1월에 상해 북신서국(北新書局)에서 출판했다.

밖에 없다. 그래도 영어와 독일어를 아는 학지들과 문호들은 그것을 돌볼새가 없거나 돌볼 가치가 없다고 여겨 그만두고 말았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아마 남이야 비웃으며 욕을 하건 말건 의연히 일본어에서 중역하거나 혹은 원문을 놓고 일어 번역본과 대조하면서 직역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나는 여전히 이렇게 하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여 그 철저한 고담준론 속의 공백을 메우기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 선생처럼 그렇게 ‘웃어버릴’ 수도 없으며 양 선생처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6

나는 서두에서 “마음을 단단히 다잡아먹었다고 자처하지만 사실은 단단하기는커녕 솜처럼 무른 것이 신월사의 특색의 하나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몇 마디 더 보충하고 이 글을 끝맺으려 한다.

『신월』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엄정한 태도’⁶⁷⁾를 주장해 나하면서 우리를 욕하는 자는 우리도 그를 욕하고 우리를 비웃는 자는 우리도 그를 비웃겠다고 했다. 이것은 틀리지 않은 말이다.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도리로써 그 사람의 몸을 다스린다”⁶⁸⁾는 것이며 일종의 ‘보복’이기는 하지만

66) 다윈의 학술 저작은 당시 중국에는 마군무(馬君武)가 번역한 『종의 시원』(즉 『종의 기원』) 한 가지밖에 없었다. 1920년에 상해 중화서국(中華書局)에서 출판했다.

67) 『신월』 제1권 제1호(1928년 3월) 창간사 「신월의 태도」에서 표시한 신월사의 태도를 가리킨다. 그들은 이른바 ‘건강’과 ‘존엄’이란 ‘2대 원칙’을 제기하고 당시의 모든 진보적 문예와 혁명적 문예는 모두 그들이 “들고 나온 2대 원칙—건강과 존엄—과 상응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 잡지 제2권 제6·7호 합본(1929년 9월)에 발표한 「삼가 독자들에게 알림」에서는 또 “우리의 입론 태도는 엄정한 정도에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68) 이 말은 『중용』 제13장 주희가 단 주해에 있다.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다. 제2권 제6·7호 합본의 광고에서도 “우리는 모두 ‘용인’하는 태도(‘용인하지 않는’ 태도를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외예)를 취한다. 우리는 모두 온건하고 이성(理性)에 부합되는 학설(學說)을 좋아한다”라고 했다. 이 두 마디도 틀리지 않은 말이다. 그것은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는다”라는 뜻이니 시초의 주장과 여전히 일관된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려면 필연코 ‘폭력으로 폭력에 항거하는’ 일에 봉착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신월사의 제군이 좋아하는 ‘온건’한 것과 상용될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신월사의 ‘언론 자유’가 억압을 받았는데 본래의 방법대로 한다면 억압자에 대해서는 역시 억압을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월』에서 보여주는 반응을 보면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자에게 고하는 글」⁶⁹⁾ 한 편을 발표했을 뿐인데 먼저 상대방의 당의(黨義)를 인용하고, 그 다음 외국의 법률을 인용하고, 마지막으로 동서양 역사의 실례를 인용하여 무릇 자유를 억압하는 자는 왕왕 멸망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생각해 낸 경고이다.

그러므로 신월사의 ‘엄정한 태도’와 ‘눈은 눈으로 갚는’ 방법은 결국 역량이 비슷하거나 역량이 좀 약한 사람에게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만일 힘깨나 쓰는 자에게 맞아서 눈두덩이 부었을 때에는 상례를 벗어나 손으로 자기의 얼굴을 감싸쥐고 “네 눈을 조심해라!”라고 소리나 치고 말 것이다.

69) 나용기(羅隆基)가 쓴 것인데 『신월』 제2권 제6·7호 합본(1929년 9월)에 실렸다.

관습과 개혁

(慣習與改革¹⁾)

체질과 정신이 굳어진 인민은 극히 사소한 개혁에 대해서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없다. 겉으로 보기에 마치 자기가 불편할까봐 그러는 것 같지만 기실은 자기에게 불리할까봐 그러는 것이다. 하지만 들고 나오는 구실을 보면 흔히 매우 공정하고 버젓하다.

금년에 음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²⁾은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사소한 일인데 상인들은 그칠 새 없이 원망하는 소리를 지르고 있다. 상인들만이 아니라 상해의 직업이 없는 유민들과 회사의 고원(雇員)들까지도 흔히 긴 한숨을 지으면서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데 매우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원들이 밀물을 기다리는 데 매우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일로 인해 그들은 오랫동안 자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농촌의 농부들과 바다의 선원들을 격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박애심(博愛心)은 실로 이만저만이 아닌 듯싶다.

음력 12월 23일이 되자 폭죽 소리가 사방에서 요란스럽게 울렸다. 내가 어느 한 점원에게 “금년에는 여전히 음력설을 쉴 수 있어도 명년에는

1) 이 글은 1930년 3월 1일 『맹아 월간』 제1권 제3호에 처음 발표되었다.
2) 1929년 10월 7일 국민당 당국에서 발표한 통령(通令)을 가리킨다. 그 통령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무릇 상인의 장부, 민간의 계약서 및 모든 수표는 19년(즉 1930년) 1월 1일부터 일률적으로 국력(國曆)을 적용해야 한다. 만일 음력을 쓰는 경우에는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틀림없이 양력설을 쇠게 되겠지요?” 하고 물어보았더니 그는 “명년은 명년이니까 명년에 가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는 명년에는 꼭 양력설을 쇠리라고 믿지 않았다. 그런데 역서에서는 절기만 남겨두고 음력을 빼버렸다. 하지만 신문에는 ‘120년 동안의 음력과 양력을 밝힌 합력’³⁾에 대한 광고가 나타났다. 글썄 120년 동안이니 그들은 증손(曾孫) 시대와 현손(玄孫) 시대의 음력과 양력까지 이미 다 마련해 놓은 것이다!

양실추 선생들은 다수를 찍 꺼리지만 다수의 힘이란 위대한 것이며 중요하다. 개혁에 뜻을 둔 사람으로서 만일 민중의 마음을 깊이 알고 방법을 찾아 잘 유도하지 않는다면 개혁에 대한 그의 이론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낭만적이고 고전적⁴⁾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으므로 몇몇 사람이 서재에 들어앉아 서로 탄상(歎賞)하면서 자기 만족을 얻는 데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가령 어떤 ‘호인 정부(好人政府)’⁵⁾가 명령을 내려 개혁했다 해도 오래지 않아 그것은 그들에 의해

3) ‘120년 동안의 음력과 양력 대조표’를 가리키는데 중화학예사(中華學藝叢書)에서 편찬하고 상해 화통서국(華通書局)에서 인쇄 발행했다.

4) 양실추는 일찍이 논문집 『낭만적인 것과 고전적인 것』을 출판하여 배빛의 신인 문주의를 선전했다.

5) 호적 등이 1922년 5월에 제기한 정치적 주장이다. 『노력 주보(努力週報)』 제2호에 발표된 『우리의 정치 주장』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정치를 논하지 않으면 몰라도 정치를 논할 경우에는 절실하고 명료하고 사람마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국내의 우수한 분자들은 그들의 이상 중의 정치 조직이 어떠한가나를 막론하고…… 지금은 모두 냉정한 태도로 표준을 낮추어 ‘호정부(好政府)’라는 하나의 목표를 공인하는 것을 오늘 중국 정치를 개혁하는 최저한도의 요구로 삼아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오늘 정치 개혁의 첫걸음은 호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무릇 사회적으로 우수한 분자들은 자위를 위하여, 사회와 국가를 위해 선뜻 나서서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 여기에서 말한 ‘호인(好人)’이요, ‘사회적으로 우수한 분자’요 하는 것은 모두 호적 등 자산계급 자유주의자들의 자기 표방이다. 1930년 전후에 호적, 나용기 등이 또다시 『신월』에서 늘 해오던 소리를 되풀이한 그 목적은 국민당 정부에 참가하려는 데 있었다.

옛 모양대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진실한 혁명기는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울리아노프 선생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풍속’과 ‘관습’을 모두 ‘문화’에 포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개혁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다.⁶⁾ 나는 이러한 것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이 혁명은 모래 위에 쌓은 탑이 삼시간에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공하지 못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중국에서 만청(滿清) 정부를 반대한 최초의 혁명이 호응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옛것을 광복하자”라는 구호, 즉 ‘복고’의 구호를 들고 나와서 보수적인 인민들의 찬동을 쉽게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에 와서는 역사상 정례(定例)가 되어 있는 개국 초의 성세(盛世)를 보지 못하고 공언히 머리채만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민들의 불만이 여간 심하지 않았다.

그 후에 있는 비교적 새로운 개혁들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는데 개혁한 것이 한 냥이라면 반동으로 나아간 것은 10근이나 되었다. 예를 들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역서에 음력을 밝히지 못하게 한 결과 120년 동안의 음력과 양력을 밝힌 합력(合曆)이 나온 것이다.

이런 합력은 틀림없이 매우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풍속과 관습의 지지가 있는가 하면 풍속과 관습의 후원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일도 역시 이러하다. 만일 광범한 민중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풍속과 관습을 연구하고 해부하여 좋고 나쁨을 구별한 다음 존속과 폐지의 기준을 세우고 존속시킬 방법과 폐지시킬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

6) 레닌이다. 그는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낡은 사회의 세력들과 그 전통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이며 유혈적 및 무혈적, 폭력적 및 평화적, 군사적 및 경제적, 교육적 및 행정적인 투쟁이다. 수백 수천만 사람들의 관습의 힘은 가장 무서운 힘이다. 투쟁에서 단련된 강철 같은 당이 없이는, 그 계급의 모든 성실한 사람들의 신임을 받는 당이 없이는, 군중의 기분을 살피며 대중에게 영향을 줄 줄 아는 당이 없이는 이런 투쟁을 성과 있게 진행할 수 없다.”

하여 실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개혁이라 해도 관습의 암석에 부딪쳐 박살이 나고 말거나 표면에서 한동안 떠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서재에서 책을 들고 종교, 법률, 문예, 미술 등등에 대해 고상한 담론을 할 때가 아니다. 설사 이런 것들에 대해 담론한다 해도 우선 관습과 풍속을 알아야 하며 또한 이러한 것들의 어두운 면을 직시할 수 있는 용맹과 의지력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확히 알지 못하고서는 개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저 미래는 광명하다고 외치기만 한다면 기실 그것은 게으른 자신과 게으른 청중을 속이는 것이다.

비혁명적인 급진 혁명론자

非革命的急進革命論者¹⁾

혹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대부대의 혁명군이라면 반드시 모든 전사의 의식이 십분 정확하고 분명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혁명군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소에 부칠 거리도 못 된다. 이 말은 언뜻 보기에는 물론 아주 정당하고 철저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불가능한 난제이며 허무한 고담(高談)이며 혁명을 해치는 달콤한 미약이다.

예를 들어 제국주의의 지배하에서는 결코 대중을 훈련하여 사람마다 '인류애'를 가지게 한 다음 다 같이 손을 잡고 회회낙락 웃으며 '대동세계(大同世界)'²⁾로 들어서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혁명가들도 자기들이 반항하는 그 세력 밑에서 언론이나 행동으로 대다수 사람들을 정확한 의식을 가지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떤 혁명 대오가 일어설 때든지 그 전사들은 현 상태에 대한 반항심이 대체로 동일할 뿐 중국적인 목적은 매우 일치하지 않는다. 혹자는 사회를, 혹자는 소집단을, 혹자는 애인을, 혹자는 자기를 위해서이며, 혹자는 그야말로 자살을 위해서이다. 하지만 혁명군은 의연히 전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진군하는 도중에 적을 향해 쏜 탄알은 그것이 개인주의자가 쏜 것이건, 집단주의자가 쏜 것이건

1) 이 글은 1930년 3월 1일 『맹야 월간』 제1권 제3호에 처음 발표되었다.

2) 본래는 옛날 사람이 상상한 평등하고 안락한 사회인데 후에 와서는 '이상 세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 '대동'이란 이 말은 『예기(禮記)』, 『예운(禮運)』에서 나온 것이다.

할 것 없이 다 적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전사가 살상되었을 때 부대의 전투력이 감소되는 점에서도 양자는 상등한 것이다. 물론 중국적인 목적이 다르니만큼 행진 과정에 대오에서 물러서거나 도망쳐 버리거나 타락하거나 변절하는 자도 무시로 나타나게 되지만 오직 전진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날이 갈수록 이 대오는 더욱 순결하고 정예한 대오가 될 수 있다.

내가 전에 엽영진(葉永鎔) 군의 『하찮은 10년』에 서언을 써주고³⁾ 사회를 위해 다소 힘을 기울였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무튼 전선에 나갔으며 보초병으로도 근무했으니(비록 총 쏘는 방법도 배우지 못하기는 했지만) 그저 무릎을 그려안고 앉아서 애가(哀歌)만 부르거나 붓을 들고 개탄만 하는 그런 문호들과 비교한다면 실로 훨씬 더 실제적인 것이다. 만일 지금의 전사들에게 모두가 의식이 정확하고 강철보다 더 굳센 전사로 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유토피아⁴⁾적인 공상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리를 벗어난 각박한 요구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후에 나는 『신보(申報)』에서 더욱 엄격하고 더욱 철저한 비평⁵⁾

3) 엽진이라고도 하는 절강성 낙청 출신이다. 제1차 국내 혁명전쟁 시기의 황포군 관학교 제3기 학생인데 후에는 국민당 군대의 장관이 되었다. 『하찮은 10년』은 그의 자서전체 소설이며 1929년에 상해 춘조서국에서 출판했다. 노신이 이 책에 써 준 머리말은 후에 『삼한집』에 수록되었다.

4) 이 말은 영국의 공상적 사회주의자 토마스 모어가 1516년에 쓴 소설 『유토피아』에서 유래한 말이다. 작가는 자기가 묘사한 ‘유토피아’라고 하는 사회 조직에 공상적 사회주의 이상을 기탁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유토피아’는 ‘공상’의 동의어가 되었다.

5) 여기에서 말한 『신보』의 비평이란 1929년 11월 19일자 『신보』, 『예술계』, “신서 월평”란에 실린, 『하찮은 10년』을 평한 착연(偶然)의 글을 가리킨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다. “우리의 주인공은 많은 혁명적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혁명을 하나의 불가피한 경우의 방법으로 삼았을 뿐이며 그런 번지르르한 혁명의 이유들은 거의 모두 후에 와서야 알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다.” “책에서는 지금의 혁명

을 보았다. 그 비평은 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중군 동기가 자기를 위한 것이란 데서 아주 깊은 불만을 표시했다. 그것은 언뜻 보면 평화를 제일 추구하고 혁명을 전혀 고취하지 않는 신문인 『신보』에는 매우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여기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철저한 혁명가인 듯하지만 기실은 전혀 혁명하지 않거나 혁명에 해로운 개인주의적 논객들을 지적함으로써 그 비평의 영혼과 신문의 체구를 잘 어울리게 하려 한다.

그 하나는 퇴폐한 자들이다. 이상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락하여 순간적인 향락을 추구하는데 일정하게 향락을 누리고 나면 또 싫증이 나서 무시로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며 그런 자극이 심할수록 더 쾌감을 느낀다. 혁명도 바로 그런 퇴폐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자극의 하나가 된다. 그것은 흡사 게걸스러운 대식가가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어 싫증이 나고 위가 약해진 다음에는 후추나 고추 같은 것을 먹어서 이마에 땀을 좀 흘리고서야 밥을 반 공기쯤 먹을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들은 혁명적 문예에 대해 철저하고 완전한 혁명적 문예로 될 것을 요구하며 조금이라도 시대적 결함이 반영되기만 하면 곧 이맛살을 찌푸리고 일소에 부칠 것도 못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을 떠나는 것이 무슨 상관이라. 그저 상쾌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프랑스의 보들레르⁶⁾가 퇴폐적인 시인이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그러나 그는 혁명을 환영했으며 혁명이 그의 퇴폐적인 생활을 방해하게 되었을 때에야 혁명을 증오해 나갔다. 그러므로 혁명 전

적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혁명’의 목적은 민족의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출로를 찾기 위한 데에 불과한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는 “『하찮은 10년』과 같은 작품은 귀중한 것으로 칠 수 없다”라고 단정했다.

6) 보들레르(C. Baudelaire, 1821~1867)는 프랑스의 시인이다. 그는 일찍이 프랑스의 1848년 2월혁명에 참가하여 『사회생로보(社會生路報)』를 편집했으며 6월의 바리케이드 전투에도 참가했다. 그러나 그 혁명이 실패하자 그는 사회적 진보에 대한 신심을 잃고 날로 퇴폐해졌다. 그의 시집 『악의 꽃』은 병태적 심리를 묘사하고 추악한 것을 미화하고 죽음을 노래했으며 비판적이고 염세적인 정서로 충만되어 있다.

야의 지상의 혁명가, 그것도 가장 철저하고 가장 격렬한 혁명가는 혁명이 닥쳐오면 지금까지의 가면구, 의식적이 아닌 가면구를 찢어버릴 수 있다. 이런 역사적 실례는 좀 귀찮은 일이 있거나 보잘것없는 지위(혹은 약간의 돈)가 생기기만 하면 동으로는 도쿄, 서로는 파리로 쏘다니는 성방오와 같은 '혁명문학가'에게도 올려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나도 이름을 짓지 못하겠다. 요컨대 일정한 주견이 조금도 없으며 따라서 세상에는 한 가지도 옳은 일이 없고 자기에게는 한 가지도 그른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결국은 현 상태가 제일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비평가로서 말을 할 때면 아무것이나 건어쥐고 그와 상반되는 것을 반박한다. 상호부조설⁷⁾을 반박할 때에는 생존경쟁설을 쓰고 생존경쟁설을 반박할 때에는 상호부조설을 쓴다. 평화론을 반대할 때에는 계급투쟁설을 쓰고 투쟁을 반대할 때에는 인류애를 주장한다. 논적(論敎)이 유심론자이면 그들의 입장은 유물론이 되고 유물론자와 변론할 때에는 또 유심론자가 된다. 요컨대 영국의 피트(feet—역자주)로 러시아의 리(里) 수를 재고 프랑스의 자로 미터를 잴다. 그래서 서로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다른 모든 것이 하나도 맞지 않으므로 언제나 자기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한가운데를 취한다”⁸⁾고 생각하며 따라서 영원히 자기 만족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의 비평의 지시에

7) 러시아 무정부주의자 크로포트킨의 반동학설이다. 이 학설은 생물 및 인류는 상호부조에 의해 생존하고 진화된다고 주장하면서 상호부조의 방법으로 사회 모순을 해결할 것을 설교했다.

생존경쟁설은 다윈의 진화론의 생존경쟁 학설이다. 이 학설은, 생물은 개체의 생존과 후대의 번식 과정에 주위 환경의 온갖 조건과 늘 모순 투쟁을 일으키는데,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가 지며 적응하는 자가 생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자연과학 학설은 후에 사회다윈주의자들의 인류사회 해석에 이용되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변호하는 이론이 되었다.

8) 이 말은 『상서(尙書)』, 「대우모(大禹謨)」에 있다.

쫓는다면 조금이라도 불완전하거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어디 그렇게 심분 완전하고 결함이 없는 사람이나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꼼짝달싹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꼼짝달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큰 잘못이다. 한마디로 말해 사람 노릇을 하기란 매우 번거롭고도 어려운 일이며 혁명가가 된다는 것은 물론 더구나 말할 것도 없다.

『신보』의 비평가가 비록 『하찮은 10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혁명적인 주인공을 요구했지만 사회과학의 번역에 대해서는 혹독한 냉소를 던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은 후자에 속하는 것인데 인생에 대한 무료함을 느끼고 구미를 돋구기 위해 고추를 좀 먹으려는 퇴폐자들의 냄새가 좀 풍기고 있다.

『하찮은 10년』은 1920년대 초반의 문壇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작품 중 하나였다. 이 책은 당시의 사회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비평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책은 문학적 완성도나 사상적 깊이가 부족하다고 평가받았다. 특히, 사회과학의 번역에 대한 냉소적 태도는, 당시의 지식인 계층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책은 당시의 문壇에서 '퇴폐적'이라고 비난받았으며, 이는 당시의 문壇에서 '퇴폐적'이라고 비난받았으며, 이는 당시의 문壇에서 '퇴폐적'이라고 비난받았다.

좌익작가동맹에 대한 의견

對於左翼作家聯盟的意見¹⁾

— 3월 2일 좌익작가동맹²⁾ 창립대회에서 한 연설

많은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앞에서 상세히 말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지금 '좌익' 작가가 쉽사리 '우익' 작가로 변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째서 그런가? 첫째로, 만일 실제적인 사회 투쟁과 접촉하지 않고 단지 유리창문 안에 들어앉아서 글을 쓰고 문

1) 이 글은 1930년 4월 1일 『맹아 월간』 제1권 제4호에 처음 발표되었다.

2) 즉 중국좌익작가동맹으로서 중국공산당이 이끈 혁명적 문학단체였다. 1930년 3월 상해에서 창립되었으며(이어서 북평, 천진 등지와 일본 도쿄에 분회가 설치되었다), 노신, 하연(夏衍), 풍설봉(馮雪峰), 풍내초(馮乃超), 주양(周揚) 등이 그 지도성원으로 있었다. 좌익작가동맹의 창립은 중국의 혁명적 문학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좌익작가동맹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마르크스주의 문예이론의 선전과 연구에 힘썼으며 온갖 그릇된 자산계급 문예사상을 비판하고 혁명적 문학 창작을 제창했으며 문예의 대중화를 탐구했으며 혁명적 문예가들을 많이 양성했으며 혁명적 문학운동의 발전을 촉진했다. 좌익작가동맹은 국민당 통치지구 내에서 혁명적 문학인들과 진보적 작가들을 이끌어 국민당의 반혁명적 문화 '포위 토벌'을 반대하여 용감하고 완강하게 투쟁했으며 이런 '포위 토벌'을 물리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때 당 내의 '좌경적 노선의 영향을 받아 좌익작가동맹의 일부 지도자들은 교조주의적 경향과 종파주의적 경향으로 나아간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노신은 일찍이 원칙적인 비판을 가했다. 좌익작가동맹 창립대회에서 한 그의 이 강연은 그때의 좌익 문예운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문건이었다. 좌익작가동맹은 국민당 정부의 백색 테러의 유린과 억압 그리고 지도에서의 종파주의적 영향으로 말미암아 시종 비교적 협소한 단체로 존재했다. 1935년 연말에 좌익작가동맹은 항일 구국운동의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해산했다.

제를 연구한다면 아무리 격렬하고 '좌'적인 것도 손쉽게 해낼 수 있지만 실제에 부딪치기만 하면 이내 분쇄되고 말 것이다. 집안에 들어앉아서는 철저한 주의를 가장 쉽게 고상하게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우경'이 될 수도 있다. 서양의 'Salon의 사회주의자'란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Salon'은 응접실이란 뜻이다. 응접실에 앉아서 사회주의를 논하는 것은 매우 우아하고 매우 이름답지만 실현하려는 생각은 없다. 이런 사회주의자는 조금도 믿을 바가 못 된다. 그리고 오늘에 있어서는 광의적인 사회주의 사상조차 갖지 않은 작가나 예술가, 즉 노동 대중은 마땅히 노예가 되어야 하며 마땅히 학살당하고 착취받아야 한다고 하는 작가나 예술가는 무솔리니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시피 되었다. 그런데 무솔리니는 문예 작품을 쓴 일이 없다(물론 이러한 작가가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아직 말할 수 없다. 예컨대 중국의 신월파 문화가 제씨들과 위에서 말한 무솔리니가 총애하는 다눈치오³⁾)가 바로 그런 작가이다.

둘째로, 혁명의 실정을 몰라도 '우익'으로 변하기 쉽다. 혁명은 고통스러운 것으로서 그 중에는 필연적으로 오물과 피가 섞이게 되므로 결코 시인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있고 그렇게 완미(完美)한 것이 아니다. 혁명은 더군다나 현실적인 일로서 여러 가지 비천하고 번거로운 공작이 요구되므로 결코 시인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다. 혁명은 물론 파괴가 동반되나 그보다도 건설이 더욱 요구된다. 파괴는 통쾌한 일이지만 건설은 번거로운 일이다. 그러므로 혁명에 대해 로맨틱한 환상을 품은 사람은 일단 혁명에 접근하거나 혁명이 진척되면 실망하기 쉽다. 듣건대 러시아의 시인 예세넨⁴⁾도 처음에는 10월혁명을 매우

3) 다눈치오(G. D'Annunzio, 1863~1938)는 이탈리아의 탐미주의 작가이다. 그의 저작으로는 장편소설 「죽음의 승리」 등이 있다. 만년에는 민족주의자가 되어 무솔리니의 총애를 받았으며 '친왕' 칭호까지 수여받았다. 무솔리니는 또 그의 전기를 현상 모집한 적이 있다.

환영했으며 “하늘과 땅의 혁명 만세!” 하고 부르짖었고 또 “나는 볼셰비키다!” 하고 말했으나 혁명 후에 상황이 자기가 상상하던 것과 완전히 달라지자 마침내 실망한 나머지 퇴폐해지고 말았다고 한다. 예세닌은 후에 자살했는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실망한 것이 그 원인의 하나라고 한다. 그리고 필냐크⁵⁾와 에렌부르크⁶⁾도 모두 이런 예에 해당한다. 우리의 신해혁명(辛亥革命) 때에도 이와 같은 예가 있었다. 그때 수많은 문인들, 예를 들면 ‘남사(南社)’⁷⁾에 속하는 사람들은 초기에는 거의가 아주 혁명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만주인을 쫓아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한조(漢朝) 관리들의 예의제도’⁸⁾대로 회복되어 사람마다 너른 소매 도포를 입고 아

- 4) 예세닌(1895~1925)은 소련의 시인이다. 그는 가부장제도 하의 농촌 전원생활을 묘사한 서정시 작가로서 유명한데 그의 작품은 대부분이 우월한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10월혁명 때에는 혁명을 찬양하는 시, 예를 들면 ‘소비에트 러시아’와 같은 시를 쓴 적이 있다. 그러나 낡은 시대의 전원생활에 미련을 두고 있는 그는 혁명이 일으킨 사회 대변혁에 대해 불만을 품고 마침내 자살하고 말았다. 여기에 인용한 시구들은 1918년에 쓴 그의 「하늘의 교수」와 「요르단 강의 비둘기」에 있다.
- 5) 필냐크(1894~1941)는 소련 혁명 초기의 이른바 ‘동반자’ 작가의 한 사람이다. 1929년에 그는 국외에서 운영하는 백러시아 신문에 장편소설 ‘붉은 나무’를 발표하여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을 비방 중상했다.
- 6) 에렌부르크(1891~1967)는 소련의 작가이다. 10월혁명 후 그는 자기의 창작에서 사회주의 현실을 왜곡하여 당시 소련 문예계의 비평을 받았다.
- 7) 문학단체이다. 1909년에 유야자(柳亞子) 등의 발기로 소주(蘇州)에서 성립되었는데 흥성할 때에는 사원이 1천여 명에 달했다. 그들은 시와 산문으로 반만청혁명을 고무했다. 신해혁명 후 분화되어 어떤 자는 원세개에게 빌붙고 어떤 자는 안복계, 연구계 등 정객 단체에 가입했으며 소수 사람만이 진보적 입장을 견지했다. 남사는 1923년에 해체되었다. 남사에서는 사원들이 쓴 시와 산문을 발표하는 부정기 간행물 「남사」를 편집 출판했는데 도합 22집을 출판했다.
- 8) 한나라 때의 숙손통 등이 제정한 예의제도를 가리킨다. 『후한서』, 「광무제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왕망이 왕위를 빼앗으려다가 실패하고 살해당한 후 사예교위 유수(즉 훗날의 한조 광무제이다)가 요속들을 거느리고 장안에 이르렀는데 그들의 처사는 ‘옛 규례대로 했다.’ 그곳의 관리들과 선비들은 “사에 요속들을 만나보고 모두들 기뻐서 어쩔 줄 몰라했다. 어떤 늙은 관리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뜻

관박대(峨冠博帶)⁹⁾로 몸을 단장하고 네거리를 활개칠 수 있으리라고 환상했던 것이다. 그런데 만청(滿清) 황제를 몰아낸 다음 민국(民國)이 창립되자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실망했으며 후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새로운 운동의 반동자로 전락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우리도 혁명의 실정을 모른다면 그들처럼 되기가 쉽다.

그리고 시인이나 문학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고상하며 그의 사업이 다른 모든 사업보다 고귀하다고 여기는 것도 역시 부정확한 관념이다.

예를 들면 이전에 하이네는 시인이 가장 고귀하고 하느님이 가장 공평하며 시인이 죽은 후에 하느님이 있는 곳에 가서 하느님을 모시고 앉으면 하느님이 그들에게 사탕과 과자를 권하리라고 여겼다. 지금은 물론 하느님이 사탕과 과자를 권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시인이나 문학가가 오늘날 근로 대중을 위해 혁명을 하고 있으니 장래에 혁명이 성공되면, 근로계급은 꼭 푸짐한 보수를 줄 것이고 각별히 우대할 것이며 특등 차에 모시고 특등 음식을 대접할 것이라고 여기거나 근로자들이 버터 바른 빵을 받쳐들고 와서 “우리의 시인이시여, 어서 드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실제로 절대 있을 수 없으며 그때에 가서는 도리어 지금보다 더 곤란하여 버터 바른 빵은 고사하고 검은 빵조차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러시아혁명 후 1, 2년 동안의 상황이 바로 그 예이다. 만약 이런 정황을 잘 몰라도 ‘우익’으로 변하기 쉽다. 사실상 근로자 대중으로서 양실추(梁實秋)가 말한 그런 ‘전도 있는’ 자가 아니라면 결코 지식계급의 사람들을 유달리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번역한 「궤멸(潰滅)」에 나오는 머치크(지식계급 출신)는 도리어 광부들에게서 늘 조소를 당하고 있다. 물론 지식계급에게는 지식계급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므로 유달리 경

밖에도 오늘 한조 관리들의 예의제도를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 9) 높은 관과 넓은 띠라는 뜻으로 높은 선비나 사대부의 차림새를 이르는 말이다.

시해서는 안되겠지만 근로계급에게도 시인 또는 문학가를 각별히 우대할 의무는 결코 없다.

이제 나는 우리들이 차후에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좀 이야기하겠다.

첫째, 구사회와 구세력에 대한 투쟁은 반드시 견결해야 하고 끈기 있게 부단히 전개해야 하며 또한 실력을 중시해야 한다. 구사회의 기반은 본래 대단히 견고하므로 새로운 운동이 한층 더 큰 힘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것을 조금도 동요시킬 수 없다. 그리고 구사회는 새로운 세력을 타협시키는 데에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으나 그 자체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중국에도 수많은 새로운 운동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새것이 낡은 것을 이겨내지 못했는데, 그 원인은 대체로 새것 측에 견결하고도 광대한 목적이 없었고 요구가 너무 작아서 이내 만족해 버리고 만 데 있다. 백화문 운동을 예로 들면 시초에 구사회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백화문의 존재를 허용하고 그것에 가련한 자리를 좀 주어 신문의 한쪽 귀퉁이 같은 데서 백화문으로 쓴 글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구사회의 견지에서 볼 때 새것이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존재를 허용한 것인데 새것은 이로써 만족을 느끼고 이미 백화문의 존재권을 획득했다고 여겼다. 그리고 1, 2년 내의 무산문학 운동도 대체로 이와 비슷하여 구사회는 무산문학을 허용했다. 무산문학은 그리 무서운 것이 아니므로 도리어 그들 자신도 무산문학을 얻어 가서 장식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객실에다 수많은 골동품 도자기를 진열하는 외에 노동자가 사용하는 상사발(품질이 좋지 않은 사발—편집자)을 한 개쯤 끼워두는 것도 색다른 풍치처럼 보이는 것과 같다. 그런데 무산문학자는 문단에서 자그마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원고도 팔 수 있게 되었으므로 더 투쟁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있으며 평론가도 “무산문학은 승리했다!”고 개선가를 부르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승리를 제외하고 무산문학의 견지에서 볼 때 과연 얼마만한 승리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무산문학은 무산계급 해방투쟁의 일익으로서 그것은 무산계급의 사회세력이 성장함에 따라 성장하는 것이다. 무산계급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은 때에 있어서 무산문학의 문단적 지위가 도리어 매우 높다면 이것은 무산문학자가 무산계급을 떠나서 구사회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증명할 따름이다.

둘째, 나는 전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작년과 작년에 문학상의 투쟁이 있기는 했지만 그 범위가 너무도 작아서 모든 구문학과 구사상에 대해 신과 사람들은 주의를 돌리지 않고 도리어 한쪽 모퉁이에서 신문학자와 신문학자끼리 싸움을 벌이게 되어 구파 사람들이 오히려 곁에서 편안히 싸움 구경을 할 수 있었다.

셋째, 우리는 대량으로 새 전사(戰士)를 양성해 내야 한다. 그것은 지금 사람이 실로 너무도 적기 때문이다. 우리는 몇 가지 잡지¹⁰⁾를 내고 있고 단행본도 적잖게 출판하고 있지만 글을 쓰는 사람은 모두 이 몇 사람뿐이므로 그 내용이 빈약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좀 건드려보는 형편이다. 번역을 하는가 하면 또 소설도 쓰고 평론도 쓰며 심지어 시까지 쓰니 이려고서야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는가? 이는 모두 사람이 너무도 적은 까닭이다. 만일 사람이 많으면 번역하는 사람은 전문적으로 번역만 할 수 있고, 창작하는 사람은 전문적으로 창작만 할 수 있으며, 평론하는 사람은 전문적으로 평론만 쓸 수 있으며 적과 맞서 싸우는 데도 병력이 강대하여 쉽게 싸워 이길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말이 나온 김에 사실을 하나 들겠다. 재작년에 창조사(創造社)와 태양사(太陽社)가 나를 공격할 때 그 역량이 어찌나 빈약하던지 후에는 나 자신도 어느 정도 무료한 감이 들어서 반격

10) 그때 출판하던 『맹아 월간』, 『척황자』, 『대중문예』, 『문예연구』 등을 가리킨다.

할 마음이 없었다. 그것은 후에 내가 적군이 '공성계(空城計)'를 쓴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그때 나의 적군은 오로지 전고(戰鼓)를 울리는 것만 일삼고 병사를 모집하고 장령을 훈련하는 데는 힘쓰지 않았다. 나를 공격하는 글은 물론 적 많았지만 모두가 가명을 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고 욕하는 소리도 같은 몇 마디를 곱씹었을 뿐이다. 그때 나는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의 사격 방법을 쓸 줄 아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나를 저격하기를 바랐지만 그런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그래도 그 전부터 줄곧 새로운 청년 전사를 양성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왔고 일찍이 몇 개의 문학단체¹¹⁾를 운영해본 적도 있지만 그 성과는 역시 매우 적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이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우리는 시급히 대대적으로 새 전사를 양성해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문학 전선에 있는 사람은 또한 '끈기'가 있어야 한다. 이른바 끈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청나라 때 팔고문(八股文)¹²⁾을 짓던 사람이 팔고문을 '문 두드리는 벽돌'로 쓰던 그런 방법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청나라 때의 팔고문은 본시 '급제'¹³⁾를 하여 벼슬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승전합(起承轉合)'¹⁴⁾만 배워가지고 그것으로써 '수재거인(秀才舉人)'이 되기만

11) 망원사(莽原社), 미명사(未名社), 조화사(朝花社) 등을 가리킨다.

12) 명, 청 시대의 과거제도에 규정된 공식화된 문체이다. 각 편마다 파제(破題), 승제(承題), 기강(起講), 입수(入手), 기고(起股), 중고(中股), 후고(后股), 속고(束股) 등 8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뒤의 4개의 부분은 주체인데 각 부분마다 서로 대구(對句) 되는 2개의 고(股)가 있어 총 8개 고로 구성되므로 '팔고문'이라고 한다.

13) 명, 청 시대의 과거제도에 의하면 동생(童生)은 먼저 현(縣)의 초시를 치고 다음에 부(府)의 복시를 치고 나중에 학정(學政)이 주관하는 원시험(院考, 道考)에 참가하여 합격하면 부학(府學), 현학(縣學)에 이름이 오르는데 이것을 '급제'라고 한다. 급제하면 '수재(秀才)'가 된다.

14) '기승전합'이란 팔고문을 짓는 공식의 하나인데, 말하자면 "기에서 문제를 평범히 제기하고, 승에서 그것을 조용히 이어받으며, 전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합에서 심오한 결말을 짓는다"는 것이다.

하면 이내 팔고문을 내동댕이치고 한평생 다시 그것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것을 '문 두드리는 벽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문을 두드려 열고 들어선 다음에는 그냥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내버려도 좋은 벽돌장과 같은 것이다. 이런 방법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시집이나 소설집을 한두 권 내놓은 다음에는 영원히 자취를 감춰버리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된다.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한 권 혹은 두 권의 책을 발표해 작은 명성이나 큰 명성을 날리고 교수 혹은 다른 어떤 지위를 얻으면 입신양명한 셈이어서 다시는 시를 쓰고 소설을 쓸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자취를 감추고 만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에는 문학이나 과학이나를 물론하고 성과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성과 있는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유용하기 때문이다(루나차르스키는 심지어 러시아의 농민 미술까지도 보 존하자고 주장했다.¹⁵⁾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어서 외국인에게 팔면 경제적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만약 우리가 문학 혹은 과학 면에서 남에게 줄 만한 것이 있다면 심지어 제국주의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치운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화면에서 성과를 내려면 끈기가 없어서는 안 된다.

끝으로 나는, 연합전선은 공통된 목적을 필요조건으로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반동파까지도 이미 연합전선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 단결되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듯한 기억이 난다. 기실 그들도 의식적인 연합전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의 목적이 같아서 행동이 일치하기 때문에 마치 연합전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전선이 통일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목적이 일치하지 못하여 소단체만을 위하거나 나아가서는 사실상 개인만을 위하고 있

15) 루나차르스키가 러시아의 농민 미술을 보존하자고 주장한 그 관점은 노신이 번역한 루나차르스키 논문집 『문예와 비평』에 수록된 「소비에트 국가와 예술」에 있다.

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만일 모두가 노농 대중을 위하는 데 목적을 둔다면 전선은 물론 통일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비평가가 필요하다

(我們要批評家!)

대체적인 형편을 보면(우리는 여기서 확실한 통계를 얻을 수 없다) 작년년부터 '혁명적'이란 간판을 건 창작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줄어들었고 출판계의 추세는 사회과학으로 이미 전향하고 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에 청년 독자들은 광고식 비평의 부적과 주문에 현혹되어 '혁명적' 창작을 읽으면 출로가 있어 자기도 구원될 수 있고 사회도 구원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리하여 그들은 아무것이나 닥치는 대로 덩석덩석 삼켰다. 그런데 뜻밖에도 많고 많은 것들은 자양물이 아니라 새 술주머니에 담은 시큼하게 변질된 술과 붉은 종이에 찢은 찢은 고기여서 먹은 다음에는 속이 메슥메슥하여 막 토할 것만 같았다.

이런 고통스러운 교훈을 얻은 후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사회과학에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정당한 전진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시장의 수요인 까닭이겠지만 사회과학의 번역서가 막 쏟아져 나와 볼 만한 책과 보아서는 안 될 책들이 서점에 같이 진열되어 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탐구하기 시작한 독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비평가들은 입을 다물고 있으며 평론가인 체하는 자들은 이 기회를 타서 "개요, 고양어요" 하면서 모조리 말살해 버리고 있다.

1) 이 글은 1930년 4월 1일 『맹아 월간』 제1권 제4호에 처음 발표되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도 사회과학과 그 문예 이론을 참으로 아는 견실하고 명석한 비평가 몇 사람이다.

중국에 비평가가 나온 지는 벌써 오래되었다. 어느 문학단체에나 다 문학적 인물들이 있으며 적어도 시인 한 사람, 소설가 한 사람, 그리고 본 단체의 영광과 공적을 선전하는 데 힘을 다하는 비평가 한 사람은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저마다 개혁에 뜻을 두고 낡은 보루를 향하여 공세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진공하는 도중에 낡은 보루 밑에서 끊임없이 서로 드잡이를 하고 있으며 기진맥진해진 다음에야 서로 손을 놓는다. 드잡이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로 큰 상처를 입지 않고 그저 씩씩거릴 따름이다. 한편으로는 혈떡이며 한편으로는 제각기 승리했다고 개가를 부르고 있다. 낡은 보루에 있는 사람들은 파수병도 세울 필요 없이 팔짱을 끼고 이런 새로운 적들 자신이 노는 희극을 굽어보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들은 아무 말도 없지만 승리한 사람은 그들이다.

최근 2년 동안에 아주 훌륭한 창작은 없다 하지만 내가 본 책으로 짚어낸 것만 해도 이수장²⁾의 『먼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태정농의 『땅의 아들』,³⁾ 엽영진의 『하찮은 10년』, 전반부, 유석의 『2월』 및 『낡은 시대의 죽음』,⁴⁾ 위금지의 『편지 일곱 통의 자전』,⁵⁾ 유일몽의 『실업한 후』⁶⁾와 같

2) 이수장(李守章)의 자는 준민(俊民)이고 강소성 남퉁 출신이다. 『먼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는 단편소설 4편이 수록되었는데 1929년 북신서국에서 출판했다.

3) 태정농(台靜農)은 안휘성 광구 사람으로서 작가이며 미명사의 성원이다. 『땅의 아들』에는 단편소설 14편이 수록되었는데 1928년 미명사에서 출판했다.

4) 유석(柔石, 1902~1931)의 원명은 조평복이다. 그는 절강성 영해 출신으로서 작가이며 『좌익작가동맹』 성원이다. 1931년 2월 7일 상해에서 국민당 반동들에게 비밀리에 살해되었다. 『2월』은 중편소설인데 1929년 11월 춘조서국에서 출판했다. 노신은 이 소설을 위해 『짧은 머리말』(『삼한집』에 수록했다)을 써주었다. 『낡은 시대의 죽음』은 장편소설인데 1929년 10월 북신서국에서 출판했다.

5) 위금지(魏金枝, 1900~1972)는 절강성 승현 출신으로서 작가이다. 『편지 일곱 통의 자전』에는 단편소설 6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1928년 상해 인간서점에서 출판했

은 것이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그래도 우수한 작품들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유명한 비평가 양실추 선생은 그냥 진서형과 서로 호응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성방오 선생은 창조사의 지난날의 영광을 그리고 난 후 '석후생'으로 일변했다가 이내 또 유성처럼 사라졌다.⁷⁾ 전행촌 선생은 근래에 또 『척황자』에서 구라하라 고레히토를 부축하여 모순(茅盾)⁸⁾과 거둬하여 실랑이를 하고 있다.⁹⁾ 각 문학단체 이외의 작품들은 이처럼 분망하거나 살벌한 싸움 마당에서 '구축'되거나 묵살되었다.

이번에 독서계가 사회과학으로 기울어진 것은 정당하고 좋은 전환의 기회로서 다른 방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문예에 대해서도 정확한 전진의 길로 나아가도록 재촉할 수 있다. 그러나 제품이 난잡하고 방관자들이 냉소하는 가운데서는 시들기 아주 쉬우므로 지금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은 그래도 사회과학과 그 문예이론을 참으로 아는 견실하고 명석한 비평가 몇 사람이다.

다. 본래 책이름은 『서신 일곱 통의 자전』이다.

6) 유일몽(劉一夢, ?~1931)은 산둥성 혼수 출신이다. 『실업한 후』에는 단편소설 8편이 수록되었는데 1929년 상해 춘야서점에서 출판했다.

7) 성방오는 석후생(石厚生)이란 필명을 썼다.

8) 모순(1896~1981)은 심안빙의 필명이다. 모순은 절강성 동향 출신으로서 문학가이며 사회활동가이며 문학연구회 주요 성원이다. 그의 저서로는 장편소설 『부식』, 『밤중』 등 여러 가지가 있다.

9) 이 말은 전행촌(錢杏邨)이 『척황자』 제1호에 발표한 「중국 신흥문학에서의 몇 가지 구체적 문제」에서 구라하라 고레히토(藏原惟人)의 「프롤레타리아 사실주의를 다시 논함」, 「프롤레타리아 예술의 내용과 형식」 등의 글을 거둬 인용하여 모순의 작품을 평론하고 모순의 글 「고령(物論)에서 도쿄로」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대한 사실을 가리킨다.

중국의 무산계급 혁명문학과 선구자의 피

中國無產階級革命文學和前驅的血¹⁾

중국의 무산계급 혁명문학은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생겨나고 중상과 억압 속에서 자라나 가장 암흑한 속에서 마침내 우리 동지들의 선혈로써 첫 편의 글을 써냈다.

우리의 노고 대중(勞苦大衆)은 지금까지 가장 심한 억압과 착취만을 받아왔다. 그래서 그들은 식자 교육의 보시마저도 받지 못하고 그저 말없이 살육당해 왔고 멸망당해 왔다. 번거롭고 어려운 상형문자는 또 그들로 하여금 지습할 기회도 갖지 못하게 했다. 지식 청년들이 자신의 선구적 사명을 깨닫고 맨 먼저 전투의 함성을 올렸다. 이 전투의 함성은 노고 대중 자신의 반역의 함성과 마찬가지로 통치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래서 주구 문인들이 떨쳐 일어나 진공하기 시작했다. 어떤 지는 요언(謠言)을 날조했고 어떤 지는 직접 정탐을 했는데 모두 비밀리에 했고 익명을 썼다. 이것은 그들 자신이 암흑한 동물이란 것을 증명했을 따름이다.

통치자들도 주구 문인들이 무산계급 혁명문학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서적과 신문을 금지하고 서점을 폐쇄하고 악성 출판법을 반포하고 저작자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최후의 수단을 써서 좌익 작가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몰래 사형

1) 이 글은 1931년 4월 25일 『전초(前哨)』(전사자 기념 특간호)에 L. S.라는 필명으로 처음 발표되었다.

에 처하고서도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물론 그들이 멸망해 가고 있는 암흑의 동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한편 중국 무산계급 혁명문학의 진영의 힘도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약전(略傳)²⁾에 나열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살해당한 몇몇 동지들의 연령과 용기 특히 평소에 쓴 그들의 작품의 성적(成績)이 전체 주구들로 하여금 감히 미친 듯이 짓어낼 수 없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이 몇몇 동지들은 이미 암살당했다. 이것은 물론 무산계급 혁명문학의 약간의 손실이 되며 우리들의 커다란 비통이다. 그러나 무산계급 혁명문학은 의연히 자라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혁명적인 광범한 노고 대중의 것이어서 하루라도 대중이 존재하고 장성하는 한 무산계급 혁명문학도 자라나기 때문이다. 우리 동지들의 피는 무산계급 혁

2) 『전초』(전사자 기념 특간호)에 실린 '좌익작가동맹'의 다섯 열사의 약전을 가리키는데 다섯 열사는 다음과 같다.

이위삼(李偉森, 1903~1931)은 이구실(李求實)이라고도 하는데 호북성 무창 출신이다. 그의 번역작품으로는 「도스토예프스키」, 「동란 속의 새 러시아 농촌」 등이 있다.

유석(柔石)에 대해서는 이 책 66쪽 「우리에게는 비평가가 필요하다」 주 4)를 참조하라.

호야빈(胡也頻, 1905~1931)은 복건성 복주 출신이다. 그의 작품으로는 소설 「모스크바로 가자」, 「광명은 우리 앞에 있다」 등이 있다.

풍갱(馮鏗, 1907~1931)은 영매(嶺梅)라고도 하는데 여자로서 광둥성 조주 출신이다. 그의 작품으로는 소설 「최후의 출로」, 「붉은 일기」 등이 있다.

은부(殷夫, 1909~1931)는 즉 백맹(白莽)인데 서백(徐白)이라고도 하며 절강성 상산 출신이다. 그의 작품으로는 신시(新詩) 「해아탑(孩兒塔)」, 「불가의 검은 파도」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좌익작가동맹' 성원이며 중국공산당 당원이었다. 이위삼은 체포될 때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에서 일했으며, 나머지 네 사람은 체포될 때 모두 '좌익작가동맹'의 책임자로 일했다. 1931년 1월 17일 그들은 왕명 등이 소집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 전원회의를 반대하기 위한 상해 동방여사(東方旅社)의 당내 모임에 참가했다가 차례로 체포되었으며 그 해 2월 7일 용화에서 국민당에게 비밀리에 살해당했다.

명문학이 혁명적인 노고 대중과 동일한 억압을 받고 있으며, 동일한 학살을 당하고 있으며, 동일한 전투를 하고 있으며, 동일한 운명을 가지고 있으며, 혁명적인 노고 대중의 문학이라는 것을 이미 증명했다.

지금 군벌의 보고는 60세가 된 노파들까지도 '사설(邪說)'에 중독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조계의 순포는 소학교의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때때로 검사를 하고 있다. 그들은 제국주의한테서 얻어 가진 총포와 몇 마리의 주구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가지고 있다면 나이가 많은, 나이가 어린—청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적들뿐이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적들은 모두 우리측에 있다.

우리가 지금 깊은 애도와 명상으로 우리들의 전사자들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중국 무산계급 혁명문학사의 첫 쪽이 동지들의 선혈로 써어졌다 는 것, 그것이 적들의 비루한 흉포성을 영원히 보여주며 우리들의 끊임없는 투쟁을 영원히 계시한다는 것을 명기하기 위한 것이다.

암흑한 중국 문예계의 현 상태

暗黒中國の文藝界の現狀¹⁾

— 미국의 『신군중』²⁾을 위해 쓰다

지금 중국에서는 무산계급의 혁명적 문예운동이 사실상 유일한 문예운동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황야의 새싹으로서 그것을 제외하고는 중국에 다른 문예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에 속하는 이른바 '문예가'들은 벌써 이른바 '예술을 위한 예술'³⁾ 나이기서는 '퇴폐'적인 작품마저도 발표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졌다. 그래서 지금 좌익 문예를 배격하는 수단은 오직 중상, 압박, 구금과 살육뿐이고, 좌익 작가들과 대립하는 자들도 건달, 밀정, 주구와 교형리들뿐이다.

이것은 지난 2년간의 사실이 뚜렷하게 실증해준다.

제작년에 플레하노프(Plekhanov)와 루나차르스키(Lunacharsky)의 문예이론을 처음으로 중국에 소개해 들여왔을 때 우선 배빗 선생(Mr. Prof. Irving Babbitt⁴⁾)의 추종자이며 감각이 예민한 '학자'⁵⁾ 한 분이 분개를 표시했다.

1) 이 글은 작가가 그 당시 중국에 와 있던 미국의 벅 스페드리의 약속에 따라 미국의 『신군중』 잡지에 써준 것인데 그 시기는 1931년 3~4월경이라고 본다. 이 글은 당시 중국의 간행물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2) 영문의 종합 월간으로서 미국의 골드가 편집하고 뉴욕 신군중사에서 발행했다. 1926년에 창간되었으며 1944년에 『주류』 잡지와 합쳤다.

3) 19세기 프랑스 작가 고티에가 맨 처음 제기한 일종의 자산계급 문예 관점이다(소설 『모팽양』 서언을 보라). 이 관점은, 예술은 모든 공리를 초월하여 존재해야 하며 창작의 목적은 예술 자체에 있지 사회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4) 배빗(1865~1933)은 미국의 비평가로서 미국에서 1920년대에 성행했던 뉴 휴머니즘 운동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였다. 낭만주의와 맞서 그 중에서도 그 주창자인

그는 문학 예술이란 본래부터 무산계급의 것이 아니므로 무산자가 문학 예술을 창작하거나 감상하려면 우선 부지런히 돈을 모아서 자산계급에까지 기어올라가야 하지 무수한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이 꽃밭에 와서 떠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또 요언(謠言)까지 날조하여 중국에서 무산계급 문학을 주장하는 사람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루블을 얻어먹었다고 말했다. 이런 방법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상해의 수많은 신문기자들은 때때로 기사를 날조했고 때로는 루블의 액수까지 게재했다. 그러나 사리에 밝은 독자들은 결코 그것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종이에 찍어진 그런 기사들보다도 그들은 오히려 현실 속에서 무산자를 학살하기 위해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실어온 총과 대포를 확실히 보았기 때문이다.

지배계급 관료배들은 학자보다 감각이 좀 떨어지지만 지난해부터는 날로 더욱 심한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간행물과 서적을 금지했는데 내용이 다소 혁명성을 띤 것뿐만 아니라 표지에 붉은 글자가 찍힌 것이나 러시아 작가의 것이라면 세라피모비치(A. Serafimovitch), 이바노프(V. Ivanov)와 오그노프(N. Ognëv)의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 체호프(A. Chekhov)와 안드레예프(L. Andreev)⁶⁾의 일부 소설까지도 모두 금지하

루소를 통렬히 비판하고 교전주의를 역설했다. 민주주의적인 개인주의나 자유주의, 자유로운 미적 실험(美的實驗)을 부정하고 균형과 규율과 훈련이 있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 5) 여기서 말한 배빗의 추종자, '학자'는 다 양심추를 가리킨다.
- 6) 세라피모비치(1863~1946)의 작품으로는 장편소설 「철의 흐름」 등이 있다. 이바노프(1895~1963)의 작품으로는 중편소설 「철갑열차 14-69호」 등이 있다. 오그노프(1888~1938)의 작품으로는 「새 러시아 학생 일기」 등이 있다. 체호프(1860~1904)의 작품으로는 단편소설 수백 편과 극본 「갈매기」, 「앵두원」 등이 있다. 안드레예프(1871~1919)의 작품으로는 중편소설 「붉은 웃음」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 작가이다.

는 범위에 넣었다. 그리하여 서점에서는 그저 산수 교과서나 동화, 예를 들면 Mr. Cat과 Miss Rose⁷⁾의 한담이나 봄은 얼마나 사랑스러우냐고 찬양한 따위의 책들밖에 출판하지 못하게 되었다. 추르 뮐렌(H. Zur Mühlen)⁸⁾이 쓴 동화의 번역본도 이미 금지되었기 때문에 봄날이나 극구 찬양할 수밖에 다른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장군 한 분⁹⁾이 노발대발하면서 동물까지 사람의 말을 하고 그것을 Mr.라고까지 부르니 인류의 존엄에 손상이 된다고 했다.

단순히 금지만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된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섯 명의 좌익 작가가 행방불명되었는데 가족들이 탐문한 결과 경비사령부에 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만나볼 수는 없었으며, 반 달 후에 다시 가서 물어보았을 때에는 이미 '해방'—이것은 '사형'을 조롱하여 하는 말이다—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상해의 모든 중국어나 외국어 출판물들에 이 사실이 전혀 게재되지 않았다. 뒤이어 새 도서를 출판했거나 대리 판매하는 서점들을 폐쇄했는데 어떤 때에는 하루에 다섯 집이나 폐쇄되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또 잇달아 문을 열고 있으므로 무슨 영문인가 했는데 서점에서 내붙인 광고들을 보고서야 영한(英漢) 대조본, 예를 들

7) 영어로 고양이 선생과 장미 아가씨이다.

8) 독일의 여성 작가이다. 빈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녔다. 1933년 독일 나치스 당의 억압으로 인해 장기간 국외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그가 쓴 『작은 포트르』(허하(許鶴)가 번역하고 노신이 교열했다) 제6편 「눈을 뚫고 나오는 풀의 이야기」에서는 착취계급과 착취계급을 겨울에 비유하여 비판했다.

9) 그때의 호남 군벌 하건(何健)을 가리킨다. 1931년 2월 23일 국민당 정부 교육부에 보내는 「자문(咨文)」에서 그는 교과서에서 동물을 인류에 비유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요즘의 교과서에는 개가 말하고 돼지가 말하고 오리가 말하는 것과 고양이 아가씨요, 개 형님이요, 소 할아버지요 하는 말들이 수두룩하다. 짐승들이 사람의 말을 할 수 있고 짐승들에게 존칭을 붙이고 있으니 비속하고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다.”

면 스티븐슨(Robert Stevenson)이나 와일드(Oscar Wilde)¹⁰⁾ 등의 글을 애써 출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배계급도 문학 예술에 대해 적극적인 건설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몇몇 서점의 본래 주인들과 점원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의 사족을 잘 받는 사람들을 비밀리에 바꿔 넣었다. 그러나 이것은 금세 실패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온통 주구들로 가득 찬 이 서점은 흡사 삼엄한 관청 같았는데 중국의 관청은 인민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곳이어서 자연히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곳에 드나들기 좋아하는 자들이란 역시 빈둥빈둥 놀고먹는 몇몇 주구들뿐이었다. 이렇고서야 어찌 장사가 잘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금지한 좌익 간행물을 대신하기 위해 글을 지어 잡지를 출판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벌써 근 10종에 달한다. 하지만 이것도 실패하고 말았다. 가장 장애가 된 것은 이런 '문예' 출판을 책임진 자들이 상해시의 정부위원(政府委員)¹¹⁾과 경비사령부의 정탐대장(偵探隊長)¹²⁾이었다는 것과 그들이 '창작'보다 '해방'의 능수로서 명예가 몇 갑절 더 높았다는 것이다. 그들이 만일 '살육법'이나 '정탐술'을 썼다면 혹시 볼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기어코 그림을 그리고 시를 읊겠다고 했다. 이것은 흡사 미국의 헨리 포드(Henry Ford)가 자동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겠다는

10) 스티븐슨(1850~1894)은 영국의 소설가이다. 작품으로는 소설 「보물섬」 등이 있다. 와일드(1854~1900)는 영국의 탐미주의 작가이다. 작품으로는 극본 「살로메」 등이 있다.

11) 주응봉(朱應鵬)을 가리킨다. 그는 국민당 상해시구당부 위원, 상해시 정부위원이였으며 『전봉 월간』 주필로도 있었다.

12) 정탐대장은 범쟁파(范爭波)를 가리킨다. 그는 국민당 상해시 당부 상무위원, 송호 경비사령부 정탐대장 겸 군법처장이였으며 『전봉 주보』 편집으로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민족주의 문학운동'의 발기자였다.

것처럼 사람들을 의아스럽게 한다.

관료배의 서점에 오는 사람이 없고 간행물도 보는 사람이 없게 되자 그들이 취한 구체책은 일찍이 이름을 날렸으나 좌익으로 명확히 기울어지지 않은 작가들을 압박하여 글을 짓게 함으로써 저들의 간행물 유포에 도움이 되게 하려 한 것이다. 그 결과 얼떨떨한 한두 사람이 그 꾀에 넘어갔을 뿐 대다수는 오늘까지도 붓을 들지 않고 있으며 어느 한 사람은 심지어 집을 집어먹고 어디론지 지취를 감추고 말았다.

지금 그들 속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되고 있는 문예가들이란 좌익 문예운동 초기에 아직 박해를 받지 않고 혁명적 청년들의 옹호를 받고 있을 때에는 좌익이라고 자칭했으나 지금은 그들의 칼 밑에 기어들어 좌익 작가를 해치고 있는 몇몇 인간들이다.¹³⁾ 어찌서 그들의 귀중한 존재가 되었겠는가? 그것은 그들이 일찍이 좌익이었으므로 그들의 몇 가지 간행물의 표지에 부분적이나마 아직 붉은 빛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중에 있던 농민과 노동자의 그림은 모두 비어즐리(Aubrey Beardsley)¹⁴⁾의 병적인 그림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지금까지 구식 강도소설(強盜小說)이나 신식 색정소설을 애독하던 그런 독자들은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지만 좀 진보적인 청년들은 읽을 책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리하여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내용이 없고 공담만 잔뜩 늘어놓은—이런 것이라야만 금지당하지 않는다—책을 읽는 것으로 당분간 마른 목이나 추긴다. 왜냐하면 그들은

13) 1931년 4~5월경에 '좌익작가동맹' 상무위원회는 「주전평(周奎平), 엽령봉(葉靈鳳), 주육영(周毓英)을 제명하는 통고」를 발표하여 '민족주의 문학운동'을 추종하고 그 운동에 참가한 그들의 반동 행위와 기타 반동 행위들을 적발 폭로했다(『문학도보(文學導報)』 제1권 제2호를 보라). 작자가 여기에서 말한 방향을 바꾼 몇몇 문예가들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

14) 비어즐리(1872~1898)는 영국의 화가이다. 그는 대부분 도안성을 띤 흑백 선으로써 사회 생활을 묘사하기 좋아했는데 늘 사람을 여위게 그렸다.

상해 문예의 개관

上海文藝之一瞥¹⁾

— 8월 12일 사회과학연구회에서 한 강연

상해의 과거 문예는 『신보(申報)』²⁾에서 시작했다. 『신보』에 대해 말하려면 60년 이전까지 소급해야 하는데 그때의 일들을 나는 모른다. 기억되는 것이라면 30년 전의 일인데 그때의 『신보』는 그냥 중국의 죽지(竹紙)에 1면 인쇄를 했으며, 거기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타지방에서 온 ‘재자(才子)’들이었다.

그때의 선비들은 대체로 두 부류, 즉 군자와 재자로 나눌 수 있다. 군자는 사서오경³⁾만 읽고 팔고문만 지었으며 아주 점잖았다. 재자는 이밖에 『홍루몽(紅樓夢)』⁴⁾ 같은 소설도 보며 과거를 보는 데 소용되지 않는 고체시(古體詩)와 금체시(今體詩)⁵⁾ 같은 것도 지었다. 이것은 재자들이

1) 이 글은 1931년 7월 27일과 8월 3일의 상해 『문예신문(文藝新報)』 제20호와 제21호에 처음으로 발표되었는데 『이심집(二心集)』에 수록할 때 작가가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노신일기』에 의하면 강연 날짜는 1931년 7월 20일이므로 부제에 8월 12일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이 책 43쪽 「역지 번역」과 「문학의 계급성」 주 60을 참조하라.

3) 유가의 경전이다. 사서(四書)란 『대학(大學)』, 『중용(中庸)』, 『논어(論語)』, 『맹자(孟子)』를 가리키는데 남송의 주희(朱熹)가 그것들을 한데 묶어 『사서집주(四書集注)』를 편찬한 데서부터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오경(五經)이란 『시(詩)』, 『서(書)』, 『예기(禮記)』, 『역(易)』, 『춘추(春秋)』의 통칭인데 한 무제 때부터 이렇게 불렀다.

4) 장편소설로서 청나라 때 조설근이 쓴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판본은 120회인데 후 40회는 일반적으로 교악이 이어 쓴 것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5) 격률이 엄격한 율시, 절구, 배율 등은 당나라 때에 형성되었는데 그때의 사람들은 이것을 금체시(또는 近體詩)라고 했으며, 이보다 좀 일찍 탄생되었고 격률이 비

공개적으로 『홍루몽』을 보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군자들이 암암리에 『홍루몽』을 보았는지 어쨌는지는 나는 알 수가 없다. 상해에 조계시—그때에는 ‘양장(洋場)’ 또는 ‘이장(夷場)’이라 했으며 후에는 거부감을 고려하여 흔히 ‘이장’이라고 썼다—가 생기자 일부 재자들이 상해로 몰려왔다. 왜냐하면 재자는 활달하여 어디나 다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자는 외국인의 것이면 항상 꺼리며 바른길에서 공명을 얻으려 했으므로 절대로 경솔하게 돌아다니지 않았다. 공자는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때를 타고 바다에 뜨겠다”⁶⁾고 말했는데 재자들이 볼 때에는 이 말에는 재자 맛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재자는 군자들의 행실을 고집스럽다고 했다.

재자는 본래 감상적이어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도 성을 내고 말을 보고도 속을 썩인다. 상해에 와서는 또 창기를 만났다. 유곽에 가서는 젊은 처녀들을 10명이고 20명이고 한 자리에 모이게 할 수 있으니 그 광경은 『홍루몽』과 아주 흡사하여 자기를 가보처럼 여겼다. 자기가 재자인 만큼 창기는 물론 가인일 것이다. 그리하여 재자가인의 책이 나오게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태반은 오직 재자만이 풍진에 전락된 가인을 불쌍히 여기며 오직 가인만이 때를 못 만나 뜻을 이루지 못한 재자들을 알아주며 천신만고를 겪은 후에 마침내 천생 배필이 되거나 모두 신선이 된다는 것들이었다.

그들은 또 신보관(申報館)을 도와 명·청 시대의 소품문 서적을 찍어 팔며 자기들도 문학단체를 결성하여 수수께끼를 내는 데 입선된 사람에게는 이런 책들을 선물로 주므로 그것이 아주 널리 유포되었다. 큰 책들, 예를 들면 『유림외사(儒林外史)』⁷⁾, 『삼보태감서양기(三寶太監西洋記)』⁸⁾

교적 자유로운 고시, 교풍에 대해서는 고체시라고 했다. 후세 사람들도 역시 이렇게 부르고 있다.

6) 이 말은 『논어』, 「공야장(公冶長)」에 있다.

7) 총 55회로 된 장편소설인데 청나라 때 오경재(吳敬濤)가 쓴 것이다. 이 책에서는

『쾌심편(快心編)』⁹⁾ 같은 것도 있었다. 지금도 우리는 고서점에서 첫 쪽에 다 ‘상해신보관방취진판인(上海申報館仿聚珍版印)’이란 글을 찍은 소책자를 흔히 볼 수 있는데 모두 그런 것이다.

재자가인의 책이 여러 해 성행하는 동안에 후배의 재자들은 마음이 차츰 달라졌다. 그들은 가인들이 ‘재자를 극진히 사랑’해서 창기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돈만을 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가인들이 재자들의 돈을 긁어내려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인지라 재자들은 창기를 길들이는 여러 가지 묘책을 강구하여 꾀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녀들한테서 이득을 보았다. 이리하여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수단을 서술한 소설이 나타나 사회적으로 매우 유행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유흥학의 교과서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책들의 주인공은 재자+(플러스) 바보가 아니라 창기를 이긴 영웅호걸이며 재자+건달이었다.

이것들이 나오기 전에 벌써 『점석재화보(点石齋畫報)』¹⁰⁾라는 화보가 나왔었다. 이 화보는 오우여¹¹⁾가 책임지고 편집한 것인데 신선 인물이나 국내외의 뉴스 등 그리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외국의 사정에 대해서 그는 잘 알지 못했다. 예를 들면 군함을 그린다는 것이 상선을 그리고 갑판에다 야전포를 그려놓았으며 격투하는 것을 그린다는 것이 예복을

과거제도와 봉건 예교(禮敎)를 풍자 비판했다.

- 8) 즉 『삼보태감서양기통속연의(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이다. 이 책은 명나라 때의 나무등(羅懋登)이 쓴 것인데 총 20권 100회이다.
- 9) 청 말년에 비교적 유행되던 통속소설의 하나로서 천화재자(天花才子)가 편집했고 사길거사(四結居士)가 평점(評點)했는데 총 3집 32회이다.
- 10) 『신보』에 부속된 석판 인쇄의 순간(旬刊) 화보였다. 1884년에 창간되어 1898년에 폐간되었다. 신보관(申報館)에서 부설한 점석재석판인쇄서국에서 출판했고 오우여가 주필로 있었다. 후에 오우여는 자기가 이 화보에 발표한 작품들을 묶어서 ‘오우여묵보’라는 제목으로 여러 책을 출판했다.
- 11) 오우여(吳友如, ?~1893년경)의 이름은 유(嘉猷라고도 한다)이고 자는 우여이며, 강소성 원화(오늘날의 오현) 출신으로서 청 말년의 화가이다.

입은 두 군인이 객실에서 장도를 빼들고 서로 찌르며 그 바람에 꽃병이 떨어져 깨진 것까지 그려놓았다. 그러나 ‘창기를 확대하는 기생어미’, ‘협잡하는 건달’ 따위의 그림은 아주 신통히 그렸는데 이는 그가 너무 많이 본 탓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도 상해에서 우리는 그가 그린 것과 같은 얼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당시 이 화보의 세력은 매우 컸다. 그것은 각 성에 유포되었는데 ‘시무(時務)’—당시에 이 명칭은 지금의 이른바 ‘신학(新學)’과 같은 것이었다—를 알려는 사람들의 이목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 몇 년 전에 또 이것은 ‘오우여묵보(吳友如墨寶)’란 이름으로 번각되었는데 그것이 훗날에 끼친 영향은 실로 심했다. 소설의 수상(綉像)¹²⁾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교과서의 삽화에서도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눈을 흘겨 뜬 험상궂은 몰골을 한 건달 아이를 그린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지금은 새로운 건달 화가로서 엽령봉¹³⁾ 선생이 나타났는데 엽 선생의 그림은 영국의 비어즐리(Aubrey Beardsley)한테서 표절해 온 것이다. 비어즐리는 ‘예술을 위한 예술’파인데 그의 그림은 일본 ‘부세회’(Ukiyoe, 浮世繪)¹⁴⁾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았다. 부세회는 민간 예술이긴 하지만 거기에 그려진 것은 대부분 기생과 배우로서 똥똥한 몸집, 결눈질하는—Erotic(색정적인) 눈이었다. 그러나 비어즐리가 그린 인물들은 몹시 여윌었는데 그것은 그 자신이 퇴폐파(Decadence)였기 때문이다. 퇴폐파 사람들은 거의 다 여윌고 초체하므로 건강한 여인들을 보면 부끄러워서 그런 여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의 엽 선생의 새로운 사안화(斜眼畫)는 바로 오

- 12) 명, 청 이래의 통속소설 권두에 그린 책 중 인물의 소묘 화상을 가리킨다.
- 13) 엽령봉(葉靈鳳, 1904~1975)은 강소성 남경 출신으로서 작가이며 화가이다. 창조사의 성원이다. 1926년부터 1927년 초까지 그는 상해에서 『환주(玄洲)』 만월간을 꾸리면서 ‘새 건달주의’를 고취했다.
- 14) ‘일본의 도쿠가와(德川) 막부(幕府) 시대(1603~1867)에 유행되던 민간 판화의 일종인데 대부분 하층 시민사회의 생활을 소재로 했다. 18세기 말에 와서 점차 쇠퇴되었다.’

우여의 낡은 사안화와 합류되었으므로 으레 몇 해 동안 유행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건달만 그리지도 않았으며 한때는 프롤레타리아도 그렸다. 그러나 그가 그린 노동자들도 역시 눈을 흘겨보며 특별히 큰 주먹을 내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프롤레타리아를 그리는데 있어서는 사실 그대로 노동자의 원 모습을 그려야지 주먹을 머리보다 더 크게 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중국 영화는 여전히 ‘재자+건달’식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그 속의 영웅들, ‘좋은 사람’이라는 영웅도 모두 교활하기 짝이 없어 상해에 오래 살면서 ‘차이쑤우(拆梢)’, ‘카이유(揩油)’, ‘토평즈(吊膀子)’¹⁵⁾에 이끌린 난 나 젊은 부랑자와 같다. 그것을 보고 난 후에는 지금 영웅이나 좋은 사람이 되려면 꼭 건달이 되어야겠다는 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재자+건달의 소설도 차츰 쇠퇴되었다. 그 원인이라면 내가 생각하건대 첫째로는 늘 창기가 돈을 빨아내고 유객이 수단을 부리는 한 가지 본세여서 끝이 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며, 둘째로는 소주 사투리를 써서, 이를테면 니=나, 내=너, 아쑤=그렇지 않은가 하는 따위의 말을 써서 상해 토박이나 강소, 절강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재자+가인의 책으로서 당시 한때 큰 인기를 끈 소설이 또 하나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영문에서 번역한 『가인소전(迦茵小傳)』(H. R. Haggard, Joan Haste)¹⁶⁾이다. 그런데 상권밖에 없었다. 역자의 말에 의하면

15) ‘차이쑤우’란 험잡한다는 말이고 ‘카이유’란 여성에 대한 음탕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며, ‘토평즈’란 여성을 유인한다는 말인데 모두 상해의 방언이다.

16) 영국의 헤거드(H. Rider Haggard)가 쓴 장편소설이다. 이 책은 처음에 반계자(蟠溪子)라고 서명한 번역본이 있었는데 그것은 원작의 전반부에 지나지 않았다. 1903년 상해 문명서국에서 출판했는데 그때에 매우 널리 유행되었다. 후에 임금남(林琴南)이 위역(魏易)의 구술에 근거하여 전문을 번역했는데 1905년 상무인서관에서 출판했다.

원본을 고서점에서 얻었는데 아주 좋기는 하나 애석하게도 하권을 구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과연 이 책은 재자가인들의 방심(芳心)을 감동시켜 아주 널리 유행되었다. 후에는 임금남¹⁷⁾ 선생까지 감동시켜 그 전부를 번역하게 했다. 책이름은 여전히 『가인소전』이라고 했다. 그런데 먼저 번역한 역자로부터 심한 욕도 먹었다. 그것은 다 번역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번역하여 가인의 품위를 낮추었고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처음에 절반만 번역한 것은 기실 원본을 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인이 사생아를 낳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역자가 고의로 번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은 그리 길지도 않은 이런 책을 외국에서 두 책으로 나누어 출판할 리도 없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당시 중국에서 혼인 문제를 어떻게 보았다는 것을 가히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재자+가인의 소설이 또 유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인이 이제는 양가(良家)의 여자가 되어 재자와 서로 애틋한 사랑을 하며 한 쌍의 나비나 원앙새처럼 서로 떨어지지 않고 버드나무 그늘 밑이나 꽃밭에서 지냈다. 그러나 때로는 엄부(嚴父)로 인해 혹은 박명(薄命)으

17) 임금남(林琴南, 1852~1924)의 이름은 서(紓)고 복건성 만후(오늘의 복주) 출신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구술에 근거하여 유럽과 아메리카의 문학 작품 100여 종을 번역했으며, 후에 『임금남 번역소설』로 묶어냈는데 당시 그 영향이 매우 컸다. 5·4 시기에 그는 신문화운동을 반대하면서 복고파의 대표 인물이 되었다. 아래에 나오는, 그가 “먼저 번역한 역자로부터 심한 욕도 먹었다”는 말은 인만생이 쓴 『가인소전(迦茵小傳)』 두 번역본을 읽고서, 라는 글(1906년 항주에서 출판한 『유희세계』 제11호에 게재되었다)을 가리킨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써어 있다. “반계자는 여러 모로 주저하며 따져본 끝에 가인(迦茵)을 위해 임신에 관한 부분을 삭제해 버렸다. …그런데 뜻밖에도 임위려(林畏慮)란 자가 가인과 무슨 책을 썼는지 반계자가 가인을 위해 여러 모로 덮어 가린 점을 날날이 밝혀 놓았다. …아! 가인은 다행히도 반계자에 의해 단점이 가려지고 장점이 두드러져 『가인소전』을 읽는 독자들의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임위려에 의해 그의 추행이 밝혀져 『가인소전』을 읽는 독자들의 멸시를 받게 되었다.”

로 인해 마침내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왔지만 다 같이 신선이 되지는 않았다—이것은 실로 대단한 진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래에 와서는 분으로도 쓸 수 있는 치분(牙粉)을 제조한 천허아생(天虛我生) 선생이 편집한 월간 잡지 『미어(眉語)』¹⁸⁾가 나타난 시기가 원양호접식 문학¹⁹⁾의 전성시기였다. 후에 『미어』는 금지당했으나 그 세력은 감퇴되지 않고 있다가 『신청년』²⁰⁾이 성행되어서야 비로소 타격을 받았다. 이 시기에 입센의 희곡이 소개되고²¹⁾ 호적지 선생의 「종신대사(終身大事)」²²⁾ 같은 다른

형식이 나타났다. 비록 일부러 이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때문에 원양호접파(鴛鴦胡蝶派)들이 목숨으로 삼는 그 혼인 문제가 노리(Nora)처럼 도망치고 말았다.

그 후에 새로운 재자파인 창조사(創造社)²³⁾가 나타났다. 창조사는 천재를 존중하며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하며 자아만 소중히 여기며 창작을 숭상하고 번역을 미워하며 특히 중역(重譯)을 혐오했으며 동시에 상해의 문학연구회²⁴⁾와 대립했다. 그것이 세상에 진출하는 첫 광고²⁵⁾에서 문단을 ‘독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 것은 바로 문학연구회를 가리킨 것이다. 그

18) 천허아생이란 진접선(陳蝶仙)을 가리키며 원양호접파의 작가이다. 9·18사변 후 일본 상품을 배척하는 전국 인민들의 함성 속에서 그가 경영하는 가정공업사는 일본의 ‘금강석(金剛石)’표 치분을 대체한 ‘무적(無敵)’표 치분을 만들어 각지에 팔아 부자가 되었다. 천허아생이 1920년에 『신보』, 『자유담』을 편집한 적은 있으나 『미어』의 주필로 있던 적은 없다. 『미어』는 원양호접파의 월간으로서 고검화(高劍華)가 주필로 있었으며 1914년 10월에 창간되어 1916년 제18호까지 내고 정간되었다.

19) 원양호접파의 작품을 가리키는데 대부분은 문언문(文言文)으로 소시민의 취미에 맞추어 묘사한 재자가인의 이야기들이다. 청 말년, 민국 초기에 산생된 원양호접파는 『소설시보』, 『민권소(民權素)』, 『소설총보』, 『토요일』 등 간행물을 발간했다. 『토요일』의 영향이 비교적 컸기 때문에 원양호접파를 토요일파라고도 불렀다. 그 대표적 작가들로는 포천소(包天笑), 진접선(陳蝶仙), 서침아(徐枕亞), 주수건(周瘦鵬), 장한수(張恨水) 등이 있다.

20) 종합성 월간 잡지로 ‘5·4’ 시기에 신문화운동을 주창하고 마르크스주의를 전파한 중요한 간행물이다. 1915년 9월 상해에서 창간되었으며 진독수(陳獨秀)가 주필로 있었다. 제1권은 이름이 『청년잡지』였으며, 제2권부터는 그 이름이 『신청년』으로 바뀌었다. 1918년 1월부터는李大鈞 등이 이 잡지의 편집에 참가했다. 1922년 7월에 휴간되었다.

21) 입센(H. J. Ibsen, 1828~1906)은 노르웨이의 극작가이다. 그의 작품으로는 각본 「인형의 집」(「노라」 또는 「괴뢰 가정」이라고도 번역한다), 「국민의 공적」 등이 있다. 「인형의 집」은 남편의 노리개가 되기 싫어 집을 나간 노라의 이야기를 묘사했는데, ‘5·4’ 시기에 그것을 중국어로 번역, 공연하여 비교적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입센의 다른 주요한 극작품들도 그때 중국어로 번역되었으며 『신청년』 제4권 제6호(1918년 6월)는 그의 생애와 사상과 작품들을 소개하는 특간호까지 내었다.

22) 호적지(胡適之, 1891~1962)의 이름은 적(適)이며 안휘성 정계 출신이다. 자산가 우익의 대표 인물로서 5·4 신문화운동에 참가한 적이 있다. 「종신대사」는 혼인문

제를 소재로 한 그의 희곡으로서 『신청년』 제6권 제3호(1919년 3월)에 발표되었다.

23) 신문학 운동의 유명한 문학단체이다. 1920년, 1921년 사이에 창립되었으며 그 주요 성원들은 곽말약, 육달부, 성방오 등이다. 창조사 초기의 문학 경향은 낭만주의로서 반제·반봉건의 색채를 띠고 있었다. 제1차 국내 혁명전쟁 기간에 곽말약과 성방오 등은 실제 혁명운동에 참가했다. 1927년에 창조사는 무산계급 혁명문학운동을 주창했으며, 이와 동시에 풍내초(馮乃超), 팡강(彭康), 이초리(李初梨) 등 중국 국외에서 돌아온 새로운 성원들을 받아들였다. 1928년 노신에 대해 진행한 창조사와 무산계급 문학을 제창한 다른 하나의 문학단체, 즉 태양사의 비평과 그들에 대한 노신의 반박은 혁명문학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 차례의 논쟁이었다. 1929년 2월에 창조사는 국민당 반동파에 의해 폐간당했다. 창조사는 『창조』(계간), 『창조 주보』, 『창조일』, 『홍수』, 『창조 월간』, 『문화 비판』 등 간행물과 『창조 총서』를 편집 출판했다.

24) 유명한 문학단체이다. 1921년 1월 심안빙(沈雁冰), 정진탁(鄭振鐸), 엽소균(葉紹鈞) 등의 발기로 북경에서 창립된 문학연구회는 「인생을 위한 예술」을 주장했고, 사회 개조를 위해 복무하는 사실주의적 신문학을 제창하고, 문학을 유희나 심심풀이로 삼는 것을 반대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와 동유럽, 북유럽 그리고 기타 ‘약소민족’의 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데 힘썼다. 당시의 문학연구회의 활동은 중국 신문학운동에 대해 커다란 추동적 역할을 했다. 문학연구회는 『소설 월보』, 『문학 순간』, 『문학 주보』, 『문학연구회 총서』 등 여러 가지 출판물을 편집했다. 노신은 이 문학단체의 지지자였다.

25) ‘세상에 진출하는 첫 광고’란 계간 『창조』의 출판 광고를 가리킨다. 1921년 9월 29일자 『시사신보』에 실린 이 광고에는 “문화운동이 일어난 후부터 중국의 신문에는 그들의 우상에 의해 독점되었다”라는 등 말이 있다.

런데 문학연구회는 이와 정반대로 인생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며 창작을 하는 한편 번역도 중시하며 피압박 민족의 문학을 소개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는데, 그러한 나라들은 모두 작은 나라여서 그 말을 아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거의 전부 중역(重譯)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 『신청년』을 성원한 적이 있어 새로운 적(敵)에 옛 적까지 합쳐졌으므로 문학연구회는 이 시기에 세 측면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다. 한 측면은 창조사였는데 그들은 천재적 예술인만큼 인생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는 문학연구회를 쓸데없는 일을 한다, ‘속된’ 티를 벗을 수 없다, 무능하다고 여기는 것은 당연했다. 그래서 한 곳이라도 오역을 발견하기만 하면 때로는 긴 특별 논문을 쓰기까지 했다.²⁶⁾ 다른 한 측면은 미국 유학을 한 신사파였는데 그들은, 문예는 오직 나라들과 마님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므로 주인공은 나라나 마님을 제외하고는 문인, 학사, 예술가, 교수, 아씨들밖에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겼으며 Yes나 No를 사용할 줄 알아야만 신사의 존엄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당시 오밀²⁷⁾ 선생은 글을 발표하여, 어떤 사람은 왜 하류사회를 묘사하기 좋아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까지 했다. 세 번째 측면은 바로 위에서 말한 원양호접파였다. 나는 그들이 무슨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나 결국 책방 주인으로 하여금 『소설 월보』²⁸⁾를 편집하는 문학연구회의 한 회원을 소환하고 또 『소설세

26) 여기서 말하는 오역을 비평한 특별 논문이란 성방오가 계간 『창조』 제2권 제1호(1923년 7월)에 발표한 「아테네주의」라는 글을 가리킨다. 이 글은 패위(佩韋, 王統照)가 「올해에 기념한 몇몇 문학가」(1922년 12월 『소설 월보』에 실렸다)라는 글에서 무신론(Atheism)을 ‘아테네주의’로 오역한 것을 비평했다.

27) 오밀(吳密, 1894~1978)의 자는 우승(雨僧)이며 섬서성 경양 출신이다. 미국에 유학하고 돌아와서 동남대학 교수로 있었다. 1921년에 그는 매광적(梅光迪), 호선숙(胡先驥) 등과 함께 『학형(學衡)』 잡지를 창간하고 복고주의를 제창했다. 그는 신문화운동을 반대한 대표 인물의 한 사람이었다.

28) 1910년(청 宣統 2년) 상해에서 창간되었으며 상무인서관에서 출판했다. 처음에는 왕운장(王運章)과 운철초(傅鐵樵)가 주필로 있었는데 토요일파의 주요 간행물의 하

계』²⁹⁾를 발간하게 하여 자기네 글을 유포시켰다. 이 잡지는 작년에 와서야 폐간되었다.

창조사의 이 싸움은 겉으로 보기에 승리했다. 많은 작품들이 당시 재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합치된 데다가 출판인의 도움까지 받다 보니 세력이 커졌다. 세력이 커지니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과 같은 큰 상점에서 창조사 사원의 번역작품과 저서—이것은 광말약³⁰⁾과 장자평³¹⁾ 두 선생의 원고를 말한다—를 출판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의 기억에 의하면 창조사에서 더 이상은 상무인서관의 출판물에서 오역된 곳을 심사해 내어 특별 논문을 쓰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도 내 생각에는 재자+건달 맛이 좀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신상해(新上海)’는 결국 ‘노상해(老上海)’를 당해낼 수 없었다. 창조사 사원들은 개신교 소리 속에서 마침내 자기들은 출판인의 상품 노릇을 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갖가지의 노력은 주인이 보전대 안경점 진열장 속의 눈을 깜박이는 종이 사람과 같은 것이므로 ‘그것으로 손님을 끌자’는 데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

나였다. 1921년 1월 제12권 제1호부터 심안빙이 주필로 있으면서 내용을 크게 개혁했으므로 토요일파의 공격을 받았다. 1923년 1월 제14권부터 정진탁(鄭振鐸)이 주필로 있었다. 1931년 12월 제22권 제12호까지 내고 정간되었다.

29) 주간(週刊)으로 원양호접파가 혁신 후의 『소설 월보』에 대항하여 발행한 간행물인데 엽경풍(葉勁風)이 주필로 있었다. 1923년 1월 상해에서 창간되었으며 상무인서관에서 출판했다. 1929년 12월에 폐간되었다.

30) 광말약(郭沫若, 1892~1978)은 사천성 악산 출신으로서 문학가이자 역사학자이며 사회운동가이다. 일찍이 혁명문화 활동에 종사했으며 유명한 문학단체인 창조사의 주요 발기자이다. 1926년에 북벌전쟁에 참가했고 1927년에 8·1 남창 봉기에 참가했다. 남창 봉기가 실패한 후 일본에 거주하면서 중국 고대 역사와 고문자학 연구에 종사했다. 항일전쟁이 폭발한 후 귀국하여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국민당 통치구의 진보적 문화 인사들을 조직하고 단합하여 항일운동과 민주주의 운동에 종사했다. 그는 많은 책들을 써내어 중국 신문화운동에 크게 기여했다.

31) 장자평(張資平, 1893~1959)은 광둥성 매현 출신으로서 창조사의 초기의 성원이었으며 항일전쟁 시기에는 민족반역자로 타락했다.

었다. 독립하여 출판하려고 기도할 때에는 주인의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끝내 독립을 하여 모든 서적들을 아주 개정하고 따로 인쇄하며 새로 시작한다고는 했으나 옛 주인은 예나 다름없이 본래의 판으로 인쇄하여 팔기만 했으며, 또한 해마다 무슨 기념이오 하고 대할인을 했다.

상품 노릇은 물론 하기 싫고 독립했어도 살아나갈 수 없었다. 창조사 사람들이 나아갈 길이란 자연히 비교적 희망이 있는 ‘혁명 책원지(革命策源地)’인 광둥이었다. 그리하여 광둥에서 ‘혁명문학’이라는 이 명사가 나타났는데 작품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상해에는 아직 그런 명사조차도 없었다.

제작년에 와서야 ‘혁명문학’이란 이름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주장한 사람은 ‘혁명 책원지’에서 돌아온 창조사의 몇몇 원로와 약간의 새로운 분자들이었다. 혁명문학이 왕성해지게 된 것은 물론 사회적 배경으로 인한 것인데 일반 대중과 청년들에게 이러한 요구가 있었다. 광둥에서부터 북벌을 시작했을 때에는 적극적인 일반 청년들이 모두 실제 사업을 하러 갔으므로 당시는 아직 이렇다 할 혁명문학 운동이 없었다. 정치 환경이 돌변하여 혁명이 좌절당하고 계급 분화가 아주 분명해졌으며 국민당이 ‘청당(淸黨)’이란 명의로 공산당과 혁명적 대중을 대대적으로 살육했으며 살아남은 청년들이 다시 피압박의 처지에 빠졌다. 그제야 혁명문학이 상해에서 강렬하게 활동했다. 그러므로 이 혁명문학의 왕성함은 표면상으로 보면 다른 나라와는 달라서 혁명의 양상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혁명의 좌절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다. 비록 개중에는 지휘도(指揮刀)를 놓고 다시 필목을 다루는 옛 직업에 종사하는 문인들도 있고, 실제 사업에서 밀려나와 글을 써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 몇몇 청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확실히 사회적 기초가 있으므로 새로운 분자들 속에는 극히 견실하고 정확한 사람들도 꽤 있었다. 그러나 그때의 혁명문학 운동은 내가 보건대 충분한 계획이 없었으며 옳지 못한 점들도 꽤 많았다. 예

를 들면 첫째로, 그들은 중국 사회에 대해 세밀한 분석도 가하지 않고 소비에트 정권 하에서만 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계적으로 운용했다. 다음으로 그들은, 특히 성방오 선생은 혁명을 일반 사람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일로 이해하게 했으며 극좌적인 흉악한 몰골을 해가지고 혁명이 닥쳐오면 일체의 비혁명가는 모두 죽게 되는 듯한 인상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에 대해 그저 공포만 느끼게 했다. 기실 혁명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혁명의 무서움을 좀 보여주려고’ 자기 맘대로 허튼소리를 치는 이런 태도도 역시 재사+건달식에 중독된 것이다.

흥분을 잘하는 사람은 누그러지기도 잘하고 심지어 퇴폐하기도 잘하는 법이다. 만일 문인이란면 항상 고전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변화의 이유를 한바탕 변호한다. 예를 들면 남의 도움을 요구할 때에는 크로포트킨³²⁾의 상호부조설을 인용하고 남과 다툴 때에는 다윈의 생존경쟁설을 인용한다. 고금을 막론하고 일정한 이론이 없거나 혹은 주장의 변화에 아무런 이유가 없고 수시로 각종 각파의 이론을 가져다 무기로 삼는 사람은 모두 건달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해의 건달이 한 쌍의 시골 남녀가 길가는 것을 보고 “여보, 당신들의 그 꼴은 풍기를 문란하게 하오 당신들은 법을 위반했소!”라고 말할 때 그것은 중국 법을 쓴 것이다. 만일 한 시골 사람이 길가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보면 “여보, 이러면 안되오 당신은 법을 위반했으니 순포방에 붙잡아가야겠소!”라고 말한다면 이때에는 그가 외국 법을 쓴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법이고 뭐고 그 자에게 돈냥이나 험잡당하기만 하면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작년의 혁명문학자가 제작년보다 펴 달라졌다. 이는 물론 경우가 달라진 까닭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일부 ‘혁명문학자’들 자체 내

32) 크로포트킨(1842~1921)은 러시아의 무정부주의자이다.

에 재발하기 쉬운 병근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혁명'과 '문학'은 서로 멀어질 듯도 하고 이어질 듯도 한, 마치 가깝게 나란히 있는 두 척의 배와도 같은데, 한 척은 '혁명'이고 한 척은 '문학'이다. 그런데 작가는 두 배에 각각 한 발씩 디디고 서 있다. 환경이 좀 좋을 때면 작가는 혁명이란 배를 힘주어 디디며 분명히 혁명가가 되며, 일단 혁명이 탄압을 당하면 문학이란 배를 힘주어 디딤으로써 단순한 문학가가 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재작년에는 무릇 비혁명문학은 모두 소탕해 버려야 한다고 매우 격렬하게 주장하던 사람이 지난해에는 레닌이 곤차로프(I. A. Gontcharov)³³⁾의 작품을 즐겨 보았다는 이야기가 머리에 떠올라서 비혁명 문학도 의의가 매우 심원하다고 느꼈다. 또 가장 철저한 혁명문학가 엽령봉 선생이 있다. 그는 철저한 혁명가—변소에 갈 때마다 나의 『외침』을 가지고 가서 뒤를 씻을 정도로 철저한 혁명가를 묘사했는데³⁴⁾ 지금은 웬 영문인지 이른바 민족주의 문학가의 뒤꽂무니를 따르고 있다.

유사한 예로서 또 항배량³⁵⁾ 선생을 들 수 있다. 혁명이 점점 고조될 때에 그는 아주 혁명적이었다. 그는 이전에 청년들은 승냥이처럼 울부짖어

33) 곤차로프(1812~1891)는 러시아 작가이다. 그의 작품으로는 장편소설 「오블로모프」 등이 있다. 레닌은 「소비에트 공화국의 국제·국내 정세에 대하여」 등의 글에서 오블로모프의 예술적 형상을 여러 번 언급했다.

34) 엽령봉의 소설 「궁수(窮愁)의 자전(自傳)」을 가라키는데 『현대소설』 제3권 제2호(1929년 11월)에 게재되었다. 소설의 주인공 위일청(魏日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관례대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동전 열두 닢을 주고 고물점에서 사온 『외침』을 석 장씩 찢어가지고 변소에 가서 대변을 본다.”

35) 항배량(向培良, 1905~1961)은 호남성 금양 출신이다. 그는 광표사(狂癡社)의 주요 성원의 한 사람이었는데 후에는 국민당에 의탁하여 살아갔다. 그는 『광표』 제5호(1926년 11월)에 발표한 「고독자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청년들은 “분노하고 울부짖으며 쫓기는 승냥이처럼 돌아서서 이빨을 드러내놓는다...” 1929년에 그는 상해에서 월간 『청춘』의 주필로 있으면서 혁명문학 운동을 반대하고 이른바 ‘인류의 예술’을 제창했다. 그의 저서 『인류의 예술』은 1930년 5월에 국민당 남경 발제서점(拔提書店)에서 출판했다.

야 할 뿐만 아니라 이빨까지 드러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물론 나쁠 것이 없지만 조심은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승냥이는 개의 선조로서 일단 사람에게 길들여지기만 하면 개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항배량 선생은 지금 인류의 예술을 제창하고 있다. 그는 계급적 예술의 존재를 반대하고 인류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갈라놓고 있으니 이 예술은 ‘선악 투쟁’의 무기가 되고 있다. 개도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놓는데 자기를 길러주는 주인과 같은 부류는 좋은 사람이고 그 외의 가난한 사람과 거지는 그의 눈에 나쁜 사람으로 보여 짓어대지 않으면 물어 놓는다. 하지만 이것도 그리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 그것은 어쨌든 야성이 여전히 좀 있기 때문이다. 이제 더 변하여 발바리로 되면 보기에는 아무 일도 상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기실 주인을 위해 직책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바로 지금 속사(俗事)를 상관하지 않는다고 자처하는 예술을 위한 예술의 명인들과 같이 대학의 강의실이나 장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곤두박질을 잘하는 소자산계급은 실사 혁명문학가가 되어 혁명문학을 쓰고 있을 때에도 혁명을 왜곡하여 쓰기 십상이며 왜곡해 쓰면 도리어 혁명에 해롭다. 그러므로 그들의 변질은 조금도 애석할 것이 없다. 혁명문학 운동이 양양될 때 많은 소자산계급 문학가들은 갑자기 변해 넘어왔는데 당시에 이런 현상을 해석하는 데 쓴 것은 돌변설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돌변이란 A가 B로 변할 경우에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유독 한 가지가 모자랄 때 그 조건이 나타나서 곧 B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물이 얼려면 온도가 0도로 되어야 하는 동시에 또 공기의 진동도 있어야 한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0도가 되었다 해도 여전히 얼지 못한다. 이때 공기가 진동해야 비로소 돌변하여 얼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돌변한 것 같지만 기실은 돌변한 것이 아니다. 가령 있어야 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자기가 변했다고

말해도 실상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돌변하여 넘어왔다고 자칭하는 소자산계급 문학가들은 금세 또 돌변하여 넘어가게 된다.

작년에 상해에서 좌익작가동맹이 성립된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때 플레하노프, 루나차르스키 등의 이론이 이미 수입되어 여러 사람들이 서로 토의할 수 있어 더욱 견실하고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바로 더욱 견실하고 유력해진 까닭에 세계적으로 고급에 드문 압박과 유린을 받게 되었으며 이런 압박과 유린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좌익 문학은 명성이 크게 높아지게 되었고 작가는 근로자들이 받치는 버터 바른 빵을 먹게 될 것이라고 여기던 이른바 혁명문학가들이 즉시 정체를 드러내놓고 반성문을 쓰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발전하여 좌익작가동맹을 공격하는 자도 나타나서 그들은 금년에 와서 견식이 또 한 걸음 진보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좌익작가동맹이 직접 자신해서 한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역시 일종의 소탕인 것이다. 이런 작가들은 변했거나 변하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어쨌든 훌륭한 작품을 써낼 수 없다.

그러면 현존하는 좌익 작가들은 훌륭한 무산계급의 문학을 써낼 수 있을까? 나는 역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좌익 작가들은 모두 선비·지식계급이어서 그들이 혁명의 실재를 써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구리야가와 하쿠손(藪川白村, H. Kuriyagawa)은, 작가가 묘사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경험한 것이라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그는 스스로 체험하고 관찰할 수 있으므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자답했다.³⁶⁾ 그러므로 도적질하는 것을 쓰기 위해 직접 도적질할 필요는 없으며 간통하는 것을 쓰기 위해 직접 간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작가가 구사회에서 자라나서 구

36) 구리야가와 하쿠손의 이러한 말들은 그가 쓴 『고민의 상징』 제3부분의 「단편 '목걸이'」에 있다.

사회의 정형을 잘 알고 구사회의 인물들을 늘 보았기 때문에 스스로 체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무산계급의 정형과 인물에 대해서는 무능하게 되거나 틀린 묘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혁명문학가라면 적어도 혁명과 생명을 같이해야 하거나 혁명의 맥박을 깊이 감수해야 한다(최근에 좌익작가동맹에서 '작가의 무산계급화'란 구호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이 점을 아주 옳게 이해한 것이다).

오늘의 중국과 같은 이런 사회에서 기대하기 가장 쉬운 것은 반역한 소자산계급의 반항적 혹은 폭로적 작품이다. 그는 멸망해 가고 있는 이 계급 속에 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깊은 요해와 매우 큰 증오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해 찌르는 칼도 가장 치명적이고 유력한 것이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 혁명적인 것 같은 작품들도 결코 자신의 계급이나 자산계급을 뒤엎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지를 개량할 수 없으며 그들의 지위를 비교적 장구하게 보존할 수 없는 데 대해 증오하거나 실망하는 것인 만큼 무산계급의 견지에서 볼 때 그것은 '형제가 집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쌍방이 마찬가지로 다 무산계급을 적대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혁명의 조류 속에서 하나의 물거품으로 될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무산계급 문학이라고 부를 필요가 정말 없으며 작가들도 앞으로의 명예를 위해 무산계급 작가로 자칭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구사회를 공격한 데 불과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결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 병근을 간파하지 못하면 역시 혁명에 해롭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작가들, 심지어 혁명적 작가와 비평가들조차 왕왕 현 사회를 직시하려고 하지 못하거나 감히 직시하지 못하며 사회의 내막, 특히 적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내막을 알지 못하거나 감히 알려고 하지 못한다. 생각나는 대로 실례를 들어본다면 이전의 『레닌 청년』³⁷⁾에

실린 중국 문학계를 평론하는 글에서는 중국 문학계를 세 개의 파로 나누었다. 첫째는 창조사인데 무산계급 문학파로 삼고 아주 길게 서술했으며, 둘째로는 어사사인데 소자산계급 문학파로 삼고 짧게 서술했으며, 셋째로는 신월사인데 소자산계급 문학파로 삼고 더욱 짧게, 한 페이지도 안 되게 서술했다. 이것은 이 청년 비평가가 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일수록 그것에 대해 할말이 더욱 없었다는 것을, 말하자면 더욱 자세히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가 책을 보는 데 있어서 반대파의 것을 보는 것은 같은 파의 것을 보는 것보다 마음에 들지 않고 상쾌하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다. 그러나 전투원이라면 혁명과 적을 이해함에 있어서 당면한 적을 더 많이 해부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문학 작품을 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혁명의 실재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적의 형편과 지금의 각 방면의 상황도 깊이 이해하고 혁명의 전도를 판정해야 한다. 오직 낡은 것을 알고 새것을 보며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추단해야만 우리의 문학이 발전할 희망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의 환경에 처해 있는 작가들이 노력만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에 있어서는 바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예가 보기 드문 억압과 유린을 당하고 있으므로 기근 상태가 광범하게 나타났다. 혁명적 문예뿐만 아니라 약간의 불평의 색채를 띠고 있는 문예까지도, 현 상태를 지적하는 문예뿐만 아니라 재래의 폐단을 공격하는 문예까지도 왕왕 박해를 받고 있다. 이 정형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통치계급의 혁명은 낡은 의지를 쟁탈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뒤엎을 때에

37)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의 기관지로, 1923년 10월 상해에서 창간되었다. 원명은 『중국 청년』이었는데 1927년 11월에 『무산청년』으로 바뀌었으며 1928년 10월에는 또 『레닌 청년』으로 바뀌었다. 1932년에 정간되었다. 여기서 언급한 글은 이 잡지 제 1권 제 11호(1929년 3월)에 실린 득소(得鈞)의 글 「1년 내의 중국 문예계에 대한 논평」을 가리킨다.

는 마치 그 의자가 매우 기증스러워 보이지만 일단 제 손에 들어오면 곧 그것이 보배로 느껴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바로 그 ‘낡은 것’과 단짝이란 것도 느껴지게 된다. 20여 년 전에 다들 주원장(명나라 태조)³⁸⁾을 민족의 혁명가라고 말했는데 기실은 그렇지 않다. 그는 황제가 된 후 몽골의 조정을 ‘대원(大元)’이라 불렀고 한인을 죽이는 데 몽골인보다도 더 심했다. 하인이 상전으로 되면 결코 ‘나리’란 칭호를 버리지 않으며 그의 틀거지도 그의 상전보다 심하고 더 가소로워진다. 이것은 바로 상해의 노동자가 돈을 좀 벌어서 자그마한 공장을 차려놓은 후에는 노동자들을 오히려 더 흉포하게 대하는 것과 같다.

어느 한 옛 필기체 소설—나는 그 책이름을 잊었다—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명나라 때의 한 무관이 야담가를 불러다 이야기를 시켰더니 그는 단도제(檀道濟)—진나라 때의 한 장군이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 무관은 야담가를 한바탕 때려주라고 분부했다. 사람들이 무슨 연고로 그러느냐고 물으니 무관은 “저놈이 내 앞에서 단도제 말을 했은즉 단도제 앞에서는 꼭 내 말을 할 것이다”³⁹⁾라고 말했다. 지금의 통치자들도 이 무관과 마찬가지로 신경이 쇠약해져서 무엇이든 다 무서워한다. 그래서 출판계에도 이전보다 더 진보한 건달들을

38) 주원장(朱元璋, 1328~1398)은 호주 종리(오늘의 안휘성 봉양) 출신이다. 그는 원나라 말년 농민봉기군 우두머리의 한 사람이며 명나라의 첫 황제이다. 신해혁명 전야에 동맹회 기관지 『민보(民報)』는 그의 초상화를 실고 그를 ‘중국 대민족의 혁명 위인’이며 ‘중국 혁명의 영웅’이라고 했다.

39) 여기서 말한 단도제는 한신(韓信)일 것이다. 송나라 때의 강소우(江少虞)가 쓴 『사실유원(事實類苑)』에는 이런 말이 있다. “당진(黨進)은 일지무식이었다. ... 장터 거리를 지나다가 난간 앞에서 연극을 하는 것을 보고 말을 멈춰 세우고 ‘너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배우는 ‘한신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듣고 당진은 크게 노하여 ‘네가 내 앞에서 한신의 말을 했은즉 한신 앞에서는 꼭 내 말을 할 것이다. 너는 분명 아첨꾼이다’라고 말하면서 곤장을 때리도록 명령했다.”

배치해 놓았는데 그들은 건달의 형체는 드러내지 않지만 더 심한 건달 수단, 즉 광고와 모함과 공갈 등 수단을 쓰고 있으며 심지어 몇몇 문학가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이익을 얻으려고 건달을 아버지로 모시기까지 하고 있다.⁴⁰⁾ 그러므로 혁명적 문학가는 정면의 적을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편 안에서 자주 변장하는 밀정도 방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단순히 문예만 가지고 하는 투쟁보다 매우 힘이 들며 따라서 그 영향이 문예에까지 미치게 된다.

지금 상해에서는 아직도 수두룩한 이른바 문예잡지들이 출판되고는 있지만 기실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서점에서 출판하는 것들은 재앙을 입을까봐 두려워서 되도록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은 글들, 예를 들면 “혁명은 물론 하지 않아서는 안 되지만 너무 지나쳐도 안 된다”라는 따위의 글들을 골라 신는데 그 특색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도 결국은 보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데 있다. 관가에서 발행하는 잡지나 관가의 비위에 맞추는 잡지를 놓고 보면 그 작가들은 또 모두가 오합지졸들인데 그들의 공통된 목적은 원고료나 몇 푼 얻으려는 데 있을 따름이다. 그들은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의 문학’이요, ‘루이스가 노벨상금을 받은 데 대하여’요 뭐요 하지만 자기가 발표한 의론에 대해 자기도 믿지 않으며 자기가 지은 글에 대해 자기도 중히 여기지 않는다. 때문에 나는 지금 상해에서 내는 문예잡지들은 모두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혁명가의 문예는 물론 억압을 받고 있지만 억압자가 발행하는 문예잡지에도 문예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면 억압자에게 정말로 문예가 없는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통전(通電), 고시(告示), 뉴스, 민족주의 ‘문학’,⁴¹⁾ 재판관의 판결문 같은 것들이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40) 상해 건달패 두목과 결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스승과 양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이른바 ‘문학가’들을 가리킨다.

41) 그때 국민당 당국에서 획책한 반동문학이다. 이 책에 수록한 「민족주의 문학」의

『신보』에는 한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계간(雞奸)⁴²⁾을 강요당하고도 명이 들도록 얻어맞은 것을 고소한 사건이 실렸는데, 재판관의 판결문에서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계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률적 명문이 없으며 맞아서 명이 들었다 해도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고소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은 그 남자가 도리어 그 여인의 ‘무고(誣告)’를 고소하고 있다. 나는 법률은 모르지만 생리학은 좀 배웠다. 얻어맞아서 피부에 명이 들면 폐, 간, 혹은 위장의 생리적 기능은 물론 훼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이 든 피부의 생리적 기능은 훼손된다. 이런 일이 오늘의 중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으니 별로 희귀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을 통해 사회상의 일부 현상을 평범한 소설이나 장시(長詩)보다 더 똑똑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말한 것을 제외하고 이른바 민족주의 문학과 벌써 오래 전부터 떠들썩한 의협소설 따위도 반드시 상세하게 해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도 없으므로 다음 기회에 말할 수밖에 없다. 오늘은 이만 하고 그치겠다.

임무와 운명」과 그 주 2(103쪽)를 참조하라.

42) 남성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성교 행위를 말한다.

‘민족주의 문학’의 임무와 운명

‘民族主義文學’의任務和運命¹⁾

1

식민정책은 꼭 건달을 보호하고 길러낸다. 제국주의의 눈에는 오직 그들만이 가장 요긴한 심복이며 쓸모 있는 매나 개로서 식민지 인민이 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임무, 즉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의 폭력에 의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전통적인 힘을 빌려 ‘온 무리를 해치는 말’과 본분을 지키지 않는 ‘불순분자’를 없애버리는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건달들은 식민지에 있는 외국 나라들의 총아(寵兒), 아니 총견(寵犬)으로서 그 지위는 상전보다는 아래지만 어쨌든 다른 피통치자들보다는 위이다.

상해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순경이 비밀 결사에 들지 않거나 소장인 이 적은 자본을 가지고 있다 해도 건달을 하나 물색하여 채권자로 모시고 후한 이자를 주지 않는다면 좀처럼 발을 붙이지 못한다. 작년에 와서는 문예계에서도 ‘양아비를 모시는’ ‘문학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노골적인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은 같은 비밀 결사의 동아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이 ‘문예가’라 부르는 수많은 인간들은 줄곧 ‘총견’의 직분을 다해왔다. 비록 그들이 표방하는 구호가

1) 이 글은 1931년 10월 23일 상해 『문학도보(文學導報)』 제1권 제6·7호 합본에 처음으로 발표되었으며 그 필명은 안요(晏敖)이다.

예술 지상주의요, 국수주의요, 민족주의요, 인류를 위한 예술이요 하는 등 가지각색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마치 순경들이 들고 있는 총이 전장총(前裝銃)이든 후장총(後裝銃)이든, 라이플총이든 모제르총이든 간에 그 궁극적 목적은 오직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즉 정부를 반대하는, 다시 말하면 ‘혁명을 반대하는’ 인민이거나 약간의 불평이라도 있는 인민들을 쏘아 죽이는 데 있는 것과 같다.

그 총견과 문학들 중에서 쟁과리와 징을 제일 요란스레 울리는 것은 이른바 ‘민족주의 문학’²⁾이다. 그러나 정탐이나 순포(巡捕)나 살인 청부업자들의 현저한 공훈에 비하면 꼭 손색이 있는 것이다. 그 까닭은 그들이 여태껏 그저 짓어대기만 하고 직접 사람을 무는 행동이 없으며 게다가 대체로 건달들보다 날제지 못하고 똥똥 떠돌아다니는 시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민족주의 문학’의 특색이어서 그 ‘총애’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간행물을 한 권 펼쳐보라. 이전에 각종 주의를 표방하던 가지각색의 인간들이 뻘뻘스럽게 한데 모여 있다. 이것은 ‘민족주의’라는 거인의 손이 그들을 붙들어온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본래 상해 바다에 오랫동안 잠졌다 떴다 하며 떠돌아다니던 시체들로서 여러 곳에 널려 있었던 것인데 풍량이 이는 바람에 한데 몰려와서 무더기를 이룬 것이다. 게다가 그 각각이 모두 폭 썩은 것들이어서 상당히 지독한 악취를 풍기고 있다.

그들의 ‘짓는 소리’와 ‘악취’는 상당히 멀리까지 퍼지는 특색이 있어서

2) 1937년 6월에 국민당 당국이 획책한 문학운동이며 그 발기자는 반공전(潘公展), 범쟁파(范爭波), 주응봉(朱應鵬), 부언장(傅彥長), 왕평릉(王平陵) 등 국민당 문인들이다. 그들은 일찍이 『전봉 주보』, 『전봉 월간』 등을 출판했다. 그들은 ‘민족주의’란 이름을 빌어 무산계급 혁명문학을 반대하고 반공, 반인민적인 반혁명문학을 제창했다. 9·18사변 후에는 또 장개석의 투항 매국정책을 위해 충성을 다했다.

제국주의에 유익하므로, 이것을 일컬어 ‘임금을 위해 앞장선다’³⁾고 한다. 그러나 시체 문학은 건달 정치와 더불어 계속 존재할 것이다.

2

그러나 위에서 말한 풍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산계급의 발흥으로 인해 일어난 자그마한 풍랑이다. 이전의 일부 이른바 문예가들도 반(半)의 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나마 자신의 괴멸을 예감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온갖 미명으로 분식하면서 그것을 고일(高逸)이요, 방달(放達) 신식말로 하면 곧 ‘퇴폐’이다⁴⁾이요 하고 말했다. 그들은 나체 여인, 정물, 죽음 등을 그리고 꽃, 달, 성지(聖地), 불면증, 술, 여자 등을 묘사했다. 낡은 사회의 붕괴가 더욱 분명해지고 계급 투쟁이 더욱 첨예화하자 그들은 자기들의 칠천지원수—새 문화를 창조하고 낡은 오물을 쓸어버리는 무산계급을 보게 되었으며 자기들이 바로 이런 오물이어서 자기들 위에 있는 통치자와 운명을 같이하게 되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자연히 제국주의의 통제를 받는, 민족 가운데 온순한 백성들이 추켜든 ‘민족주의 문학’이라는 기치 아래 몰려와서 자신들의 상전과 함께 한번 최후의 발악을 해보려 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비록 부스러기가 되어 떠도는 시체들이라 할 지라도 그 목표만은 동일하다. 그것은, 즉 상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수단을 다하여 무산계급을 억압함으로써 저들의 잔명을 이어가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부스러기이고 또 대부분 이전의 남은 가족이 붙어

3) 이 말은 『시경』, 「위풍(衛風)」, 「백해(伯兮)」에 있다. 본래는 왕실의 전쟁에 선봉으로 나선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민족주의 문학’이 ‘외적을 몰리치려면 먼저 국내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국민당의 매국 투항정책을 위해 여론을 조성하는 것, 실제에 있어서는 중국에 대한 일본 침략자의 진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가리킨다.

있기 때문에 선언을 내어놓은 후에도 선명한 작품이 보이지 않는다. 선언⁴⁾은 얼마 안 되는 한 무리의 부스러기들을 억지로 주워 모은 부스러기 그 자체여서 근거로 삼을 것이 못 된다.

그러나 『전봉(前鋒) 월간』⁵⁾ 제5호는 우리에게 아주 명백한 작품을 한편 보여주었는데, 편집자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염석산(閔錫山), 풍옥상(馮玉祥) 토벌전⁶⁾에 참가한 실지(實地)의 체험기”라고 한다. 전투를 묘사한 소설이 별로 다를 것은 없지만 ‘청년 군인’이란 작자가 자술한 전쟁 마당에서의 심리는 확실히 괴이한데, 이것은 ‘민족주의 문학가’의 자화상이므로 자못 정중하게 인용할 가치가 있다.

“저녁마다 깜빡이는 못 별들 아래에 서서 기병총을 들고 별레들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주변에서는 무수한 모기가 날아다닌다. 이 모든 것은 아프리카 사막에서 아랍인들과 싸우며 피 흘리는 프랑스 ‘주둔군’의 생활을 연상케 한다.”(황진하, 「농해선(隴海線)에서」)

그러니 중국의 군벌의 혼전이 ‘청년 군인’에게는, ‘민족주의 문학가’에게는 한 나라 인민을 내몰아 서로 살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

4) 1930년 6월 1일에 발표한 「민족주의 문예운동 선언」을 가리키는데, 이 선언은 『전봉 주보』 제2호와 제3호(1930년 6월 29일, 7월 6일)에 연재되었다. 되는데로 주워 모은 이 ‘선언’은 이른바 ‘문예의 중심의식’, 즉 파쇼주의의 ‘민족의식’을 수립할 것을 고취했으며 ‘민족의식으로 계급의식을 대체’할 것을 제기했으며 마르크스주의의 계급투쟁 학설을 반대했다. 이 선언은 프랑스의 철학자 텐의 『예술철학』 가운데 일부 논설을 표절해다가 민족 형성사와 민족 혁명사를 왜곡했고 예술상의 각종 유포를 망언했는데 그 내용은 아무런 체계와 조리도 없었다.

5) ‘민족주의 문학’의 주요 간행물이며 주용봉, 부언장 등이 편집했다. 1930년 10월 상해에서 창간되어 1931년 4월 제7호까지 내고 정간되었다.

6) 장개석이 풍옥상(馮玉祥), 염석산(閔錫山)과 농해(隴海)철도, 진포(津浦)철도 연선에서 싸운 군벌 전쟁을 가리킨다. 이 전쟁은 1930년 5월에 시작되어 10월에 결속되었는데 쌍방의 사상자가 30여만 명에 달했다.

이 다른 한 외국인을 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민족이니 전쟁터에서 밤이 되면 자기의 피부색이 희게 변하고 콧날이 높아져서 라틴족의 전사가 되어 야만적인 아프리카에서 있는 감을 표현해 느낀 것이다. 그러나 주위의 백성들을 모두 원수로 보고 그들을 하나하나 죽여버리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프랑스인들은 아프리카의 아랍인들에 대해 민족주의로 말하면 조금도 애석히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한 토막만으로도 큰 면으로는 중국의 군벌들이 어째서 제국주의의 줄개로 되어 중국 인민을 해치고 도살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을 ‘프랑스의 주둔군’으로 생각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작은 면으로는 중국의 ‘민족주의 문학가’들이 근본적으로 외국 상전들과 이해 관계가 같으면서도 어째서 ‘민족주의’라고 일컬어 독자들을 호리명당하게 하는가 하는 것도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이 때로는 자신을 라틴족이나 튜튼족⁷⁾처럼 생각하는 까닭이다.

3

황진하⁸⁾ 선생이 이렇듯 솔직하게 쓴 것을 보면 그가 토로한 심정은 물론 진실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소설에서 나타난 지식에 근거하여 추측하면 결코 모르지 않으면서도 일부러 말하지 않은 가식이 약간 있다. 그것은 그가 ‘프랑스의 안남병(安南兵)’⁹⁾을 두루몽실하게 ‘프랑스의 주둔군’

- 7) 게르만어계에 속하는 독일,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사람들을 두루 가리킨다. 튜튼은 기원전 북유럽에 거주한 게르만 부락의 명칭이다.
- 8) 황진하(黃震遐, 1907~1974)는 광동성 남해 출신으로서 ‘민족주의 문학’의 핵심 인물이다.
- 9) 안남은 지금의 베트남을 말하는데, 프랑스는 식민지 베트남 사람들을 용병으로 강제 징집하여 알제리 등 아프리카 식민지 통치에 활용했는데 이들을 안남병이라 한다. 이 말은 민족주의 문학운동을 제창한 부연장의 「황색인의 피」 머리말에 있다.

으로 고쳐놓은 것이다. 그래서 ‘실제의 체험기’와는 좀 거리가 멀게 되었으며 또 앞절에서 말한 그런 시비를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나 작가는 총명하다. 그는 ‘친구인 부연장(傅彦長)의 평소의 많은 답론을 들었고… 많은 점에서 기탄 없이 그의 훈도(薰陶)를 받았으며’¹⁰⁾ 또 중국과 외국의 사전(史傳)을 고증한 다음 ‘민족주의’라는 이 제목에 비교적 맞는 서사시(敘事詩) 한 수를 썼는데 이번에는 프랑스인이 아니라 「황색 인종의 피」(『전봉 월간』 제7호)를 썼다.

이 서사시의 사적은 황색 인종이 서정(西征)하는 것인데 대장은 징기즈칸의 손자 바투¹¹⁾ 원수로서 진정한 황색 인종이다. 정복하는 곳은 유럽인데 기실은 전적으로 아라사(러시아)이다—이것은 작가의 목표이다. 연합군은 한족, 타타르족, 여진족, 거란족¹²⁾ 사람으로 구성되었다—이것은 작가의 계획이다. 연합군은 계속 승리를 거두었으나 애석하게도 후에는 이 네 민족의 사람들이 ‘우의(友誼)의 중요함과 ‘단결의 힘’을 몰라서 서로 참살하다가 그만 백인종의 무사들에게 정복당하고 말았다—이것은 작가의 풍유이며 작가의 비애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황색 인종 군대의 위용과 그 악랄함을 보기로 하자.

10) 이것은 황진하의 「황색 인종의 피」 서문에 있는 말이다. 원문은 이러하다. “끝으로 또 인명하고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할 점은 바로 친구인 부연장이 평소에 한 많은 답론이다. 부연장은 역사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학자이다. 나의 이 글은 비록 그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은연중에 많은 점에서 그의 훈도를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1931년 4월 『전봉 월간』 제1권 제7호를 보라)

11) 칭기즈칸(1162~1227)의 이름은 테무친이며 고대 몽골족의 우두머리였다. 13세기 초에 몽골족의 각 부족을 통일하고 몽골 칸국을 창건하여 왕으로 추대된 후 칭기즈칸으로 칭했다. 1271년에 쿠빌라이는 남송을 멸망시키고 원 왕조를 창건한 후 원 태조로 추대되었다. 그의 손자 바투(1209~1256)는 몽골 칸국의 대장으로서 1235년부터 1244년까지 여러 차례 부대를 거느리고 서정(西征)하여 러시아와 유럽의 일부 나라들에 침입했다.

12) 타타르, 여진, 거란은 그때 중국 북방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다.

.....

무시무시하구나, 시체를 꿰는 사품치는 기름.
 소름이 끼치는구나, 도처에 나뉘는 썩은 해골.
 죽음의 신이 백인 처녀를 으스러지게 꺾안는다.
 미인의 진수가 흉측한 촉루(觸虜)로 변한다.
 야수 같은 생변(生蕃)이 옛 궁전에서 악투한다.
 십자군 전사의 얼굴에 애수가 넘친다.
 천 년 묵은 관에서 구역질나는 악취가 풍긴다.
 십자군 전사의 얼굴에 애수가 넘친다.
 해골이 철제(鐵蹄)에 부서지고 낙타가 비명을 지른다.
 상제(上帝)는 도망치고 마수가 복수의 불채찍을 휘두른다.
 황화(黃禍)가 왔다! 황화가 왔다!
 아시아의 용사들이 식인의 피 묻은 입을 벌린다.

이 독일의 황제 빌헬름이 “독일, 독일은 무엇보다도 높다”는 것을 고취하기 위해 써먹은 이 ‘황화’,¹³⁾ ‘아시아의 용사들이 벌린’ 이 ‘식인의 피 묻은 입’을 우리의 시인은 ‘아라사’에, 다시 말하면 지금의 무산자 전정(專政)의 첫 번째 국가에 돌림으로써 무산계급의 모범을 소멸하려 한다— 이것이 ‘민족주의 문학’의 목표이다. 그러나 필경 식민지의 온순한 백성

13) 빌헬름 2세(Wilhelm II, 1859~1941)를 가리킨다. 그는 독일 제국의 황제이며 제1차 세계대전의 장본인이다. 빌헬름 2세는 1895년에 그린 「황화의 소묘」에다 “유럽의 여러 나라 인민들이여, 당신들의 가장 성스러운 재부를 보위하라!”라는 제사를 써서 왕궁, 귀족과 외국의 국가 수뇌들에게 살포했다. 1907년에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황화(黃禍)’—이것은 내가 오래 전에 벌써 인식하게 된 하나의 위험이다. 실제에 있어서 ‘황화’라는 이 명사를 창조한 사람은 바로 나다.” ‘황화’론은 19세기 말에 나와서 20세기 초에 성행했다. ‘황화’론은 중국과 일본 등 동방 황색 민족의 나라들을 유럽을 위협하는 재화라고 설교하면서 동방에 대한 서방 제국주의의 예속과 약탈을 위한 여론을 조성했다.

의 ‘민족주의 문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인이 수령으로 받들어 모시는 것은 중화 사람인 조구¹⁴⁾가 아니라 몽골 사람인 바투이며, ‘식인의 피 묻은 입’을 벌린 것은 중국의 용사들이 아니라 ‘아시아의 용사들’이며, 바랐던 것은 각 민족간의 평등한 우애가 아니라 바투 통재하의 ‘우의’이다— 이것이 바로 노골적인 이른바 ‘민족주의 문학’의 특색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작가·청년·군인의 비애이기도 하다.

4

바투는 죽었다. 지금 아시아의 황색 인종 중에서 그때의 몽골과 비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일본밖에 없다. 일본의 용사들도 비록 소비에트 러시아를 몹시 증오하기는 하지만 중화의 용사들을 애무하지도 않으며, ‘일지친선(日支親善)’을 크게 부르짖는 것이 비록 ‘우의’를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긴 하지만 사실이 말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중국 ‘민족주의 문학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미 비애로 느껴지고 있으므로 일본에 대해 풍자를 가하는 것은 본래 추세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과연 시인의 비애의 예감이 실증된 듯하며 나아가서는 모습이 훨씬 더 나쁜 것 같다. ‘불채찍을 휘둘러’ ‘아라사’를 불사르기 시작하려 할 때 바투의 당시의 결말과 같이 조선인이 중국인을 함부로 살해하고¹⁵⁾ 일본인이 ‘식인의 피 묻은 입을 벌리’고 동삼성(東三省)을 삼켜버렸다. 그것은 그들이 부연장 선생의 훈도를 받지 않아서 ‘단결의 힘’의 중요함을 모르고 그만 중국의 ‘용사들’까지 아프리카의 아라비아인으로 본 것이 아닌가?

14) 조구(趙構, 1107~1187)는 송나라 고종이며 남송의 제1대 황제이다.

15) 9·18 사변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도발과 시족으로 인해 평양과 서울 등지에서는 화교를 습격하는 사건이 생겼다.

이것은 확실히 큰 타격이다. 군인인 작가가 아직 그의 용맹하고 장엄한 외침소리를 내기도 전에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은 '민족주의' 기치 아래 있는 신문에 실린 작은 용사들의 격분과 절망이다. 이것도 추세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상과 현실은 본래부터 쉽게 충돌하는 법이다. 이상에 이미 비애가 깃들여 있었으니 현실이 되었을 때에는 물론 절망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리하여 작은 용사들은 싸움에 나가려 한다.

싸우자, 최후의 결심을 다지고 우리의 원수들을 몰살하자.
원수들의 총포성이 들리나니
어서 나가자,
우리의 육체로 장성을 쌓자.
머리 위에선 뇌성이 울고
발 밑에선 파도가 울부짖고
가슴에선 더운 피 끓어 넘쳐나니
우리 모두 전선으로 달려나가자.

- 소봉(蘇鳳), 「전가(戰歌)」, 『민국일보』에서

나가자, 싸움터로
우리의 더운 피는 끓어 넘치고
우리의 육신은 치를 떤다.
우리의 더운 피로 적들의 총구를 녹슬게 하고
우리의 육탄으로 원수의 포구를 틀어막자.
나가자, 싸움터로
우리의 무쌍한 용기로

우리의 순정의 뉘트로
원수를 몰아내자
아니, 원수를 몰살시키자.

- 김예경(甘豫慶), 「나가자, 싸움터로」, 『신보(申報)』에서

동포여, 깨어나라
약자의 마음을 차버리고
약자의 머리를 차버리고
보라! 보라! 보라!
동포들의 피가 분수처럼 쏟아진다.
동포들의 살이 갈기갈기 찢긴다.
동포들의 시체가 줄줄이 걸린다.

- 소관화(召冠華), 「깨어나라, 동포여」, 『신보』에서

이 시들에서 아주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작가나 다 무기가 없음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육신으로', '순정의 뉘'으로, '시체'로 싸울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황색 인종의 피」의 작가의 이전의 비애이며, 또 그가 바투 원수의 뒤를 따르고 나서 '우의'를 주장하게 된 연고이다. 무기는 상전에게서 사온 것이고 무산자는 모두 원수가 되었는데, 가령 상전이 그 사정을 봐주지 않고 '징벌'¹⁶⁾을 가하려 한다면 유일한 출로는 실로 죽음밖에 없다.

우리는 갓 훈련받은 부대
철석같은 의지와

16) 일본 군벌들은 9·18사변을 발동한 후 중국에 대한 자신들의 침략 행위를 '징벌'이라고 했다.

끓어 넘치는 뜨거운 피로
 횡포한 무리들을 소탕하리.
 동포들이여, 친애하는 동포들이여,
 어서 떨쳐 일어나 싸우러 가자.
 어서 떨쳐 일어나 분투하자.
 전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다.

- 사산(沙珊), 『학생군(學生軍)』, 『신보』에서

하늘은 노호하고
 대지는 진동한다.
 사람은 돌진하고 야수는 울부짖는다.
 온 누리의 모든 것이 포효한다.
 벗이여,
 우리의 목이 적에게 잘릴 각오를 하자.

- 서지진(徐之津), 『위대한 죽음』, 『신보』에서

한 무리는 의기를 떨치고 한 무리는 비통에 잠겼다. 그저 써보는 것은 물론 무방하겠지만 정말 그렇게 하려 한다면 그것은 ‘민족주의 문학’의 기본 의의를 너무도 모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역시 ‘민족주의 문학’의 임무는 다한 것이다.

6

『전봉 월간』에 큰 활자로 제목을 단 「황색 인종의 피」의 작가 황진하 시인은 일찍이 우리들에게 이상적인 원수는 바투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던가? 이 시인은 부언장 선생의 훈도(勳圖)도 받았고 중국과 외국의 사전도 뒤져보았고 또 “중세기의 동유럽은 세 가지 사상의 충돌점”¹⁷⁾이란

것까지 이는데 어찌 조가(趙家) 말엽의 중국이 몽골인의 폭행과 약탈의 장소였다는 것만은 몰랐겠는가? 바투 원수의 할아버지인 칭기즈칸은 중국에 침입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부녀를 간음하고 가옥을 불살랐다. 산동성 곡부(曲阜)에 가서 공자와 노자 두 선생의 조각상을 보고 원나라의 병사들도 그 얼굴을 손가락질하며 ““오랑캐에게 군주가 있는 것은 차라리 제하(諸夏)에 군주가 없느니만 못하다”라고 한 자가 바로 네가 아니었더냐?” 하고 욕설하면서 그 얼굴에 활을 쏘았다. 이것은 송나라 때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쓴 필기(筆記)¹⁸⁾에 있는 말인데 그것은 지금 신문지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눈물이나 흘리는 글과 같은 것이다. 황 시인이 묘사한 ‘아라사’의 그 “죽음의 신이 백인 처녀를 으스러지게 꺾어낸다...”는 묘한 구절은 사실상 그 당시 중국에 나타났던 정경이다. 그러나 그의 손자 대에 가서는 그들이 손을 맞잡고 ‘서정(西征)’을 하지 않았는가? 지금 일본군이 ‘동정(東征)’하여 동삼성을 삼킨 것은 바로 ‘민족주의 문학가’들의 이상 중 ‘서정(西征)’의 첫걸음이며 “아시아의 용사들이 식인의 파문을 입을 벌리”는 서막이다. 그러나 먼저 중국에서 한 입 물어뜯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 칭기즈칸도 ‘아라사’에 대해 한 것처럼 먼저 중국인을 중

17) 이것은 「황색 인종의 피」 서문에 있는 말이다. “중세기의 동유럽은 세 가지 사상의 충돌점이었다. 이 세 가지 사상은 곧 유태인, 그리스인, 유목 민족의 사상인데 그것들은 늘 한데 뒤섞여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

18) 송나라 때의 장계유가 쓴 『계록편(鷄肋編)』을 가리킨다. 이 책의 중권(中卷)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정강 이후 금나라 병사들이 중국에 쳐들어와 풍속이 다른 고장에서 제멋대로 행패를 부렸는데 그들이 지나는 곳은 어디나 다 불길에 휩싸였다. 예를 들면 곡부의 선성(先聖)의 옛 집...들은 금나라 병사들이 이르자 곧 찢터미가 되었다. 그리고 선성의 조각상을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오랑캐에게 군주가 있다고 한 놈이다’라고 욕했다. 중원(中原)의 제화는 문자가 있는 아래 있어본 적이 없다.” 노신의 글에서 원나라의 병사들이라고 한 것은 금나라의 병사들이라고 해야 맞다고 본다. “오랑캐에게 군주가 있는 것은 차라리 제하에 군주가 없느니만 못하다”라고 한 말은 『논어』, 『팔일(八佞)』에 있다.

